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명사구 동격 구성 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서 반 석

한국어 명사구 동격 구성 연구

서 반 석

본고는 한국어 명사구 동격 구성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동격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사구와 명사구의 결합, 관형사절과 표제어의 결합, 인용 구문 등 연관성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문법 현상들이 동격이라는 단일한 용어 아래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동격 구성의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우선 논의의 범위를 NP(체언 상당 요소)에 한정하고, 동격 구성을 ‘동일한 지시를 가진 NP들의 연쇄’로 1차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각 NP는 동일한 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이룬 구성도 한 문장에서 각 요소들과 동일한 격 기능을 보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격 구성의 요소들이 동일한 지시와 함께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동격 구성의 통사적인 성질은 동일한 격을 갖는 병렬 구성과 비슷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은 관형 구성과 비슷한 수식 기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각 요소들 사이에 개입하여 그 구성이 동격 구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들, 즉 동격 확인 요소의 존재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동격 구성이 문체에 따라 기능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흥성 유무를 기준으로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문어체 동격 구성은 한국어의 일반적인 수식 방향과 동일한 순행 수식과 그 반대인 역행 수식, 한 NP에 나열된 요소를 다른 NP가 아우르는 아우름의 기능을 나타냄을 보였다. 그리고 구어체 동격 구성은 문어체 동격 구성의 기능들뿐 아니라 발화 수정 기능,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을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동격 구성을 분류하였다. 이에 NP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보통명사구, 고유명사구, 의존명사구, 대명사구로 분류하여 이들이 각각 선-

후행할 경우에 동격 구성이 어떤 기능들을 보이는지 말뭉치의 실례를 통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본고의 한계와 남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격 구성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이려고 하였다.

주요어 : 명사구, 동격 구성, 지시, 의의, 즉흥성.

학번 : 2010-22930

차 례

1.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2
2. 기본 논의	8
2.1. 동격 구성의 정의 및 범위	8
2.1.1. 동격 구성의 정의	8
2.1.2. 동격 구성의 범위	17
2.2. 동격 확인 요소	23
2.2.1. 요소 개입의 가능성	23
2.2.2. 동격 확인 요소의 개념 및 특징	25
2.3. 분석 기준	28
2.4. 소결	30
3. 문체적 특성에 따른 동격 구성 분석	32
3.1. 문체 특성에 관한 전제	32
3.2. 문어체 동격 구성	36
3.2.1. 순행 수식 기능	36
3.2.2. 역행 수식 기능	40
3.2.3. 아우름 기능	41
3.3. 구어체 동격 구성	43
3.3.1. 문어체 동격 구성의 기능들	43

3.3.2. 발화 수정 기능	45
3.3.3.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	48
3.4. 소결	50
4. 형태적 특성에 따른 동격 구성 분석	52
4.1. 형태 특성에 관한 기본 논의	52
4.2. 명사구 구성	53
4.2.1. 명사구와의 결합	53
4.2.2. 대명사구와의 결합	60
4.3. 대명사구 구성	62
4.4. 속격 조사 개입 구성	64
4.5. 소결	66
5.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7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현대 한국어의 문장 중에는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특이한 경우들이 있다.

- (1) ㄱ. 나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온 애 걀랑 나랑 정말 못살았어요.
ㄴ. 살아남은 유일한 이가 여기 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잠들어 있는 자, 프랑수아 비
용이다.

(1ㄱ)에서 선행하고 있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과 후행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두 번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다. 구어체 문장에서는 발화 실수나 반복 표현 등이 많이 나타나기에, 이러한 표현을 단순히 발화상의 문제라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ㄴ)과 같은 문어체 문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위의 표현들이 단순한 발화 실수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시간적으로 발화되는 구어체 문장과는 달리 문어체 문장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표현이 갖는 특정한 기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1)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요소들의 관계를 보통 ‘동격(同格, apposition)’이라 불러왔다. 본고에서는 ‘동격’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요소들이 한 문장 안에서 이루고 있는 구성을 ‘동격 구성’이라 부르고, 이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격 구성은 구어와 문어 양쪽에서 예시들을 찾을 수 있

으며 생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손꼽힐 정도로 적다. 또한 동격 구성의 범위가 논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서 명사끼리의 결합, 관형사절과 표제어의 결합, 인용 구문 등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문법적인 동질성을 거의 찾을 수 없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동격’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다루어지곤 했다. 게다가 이 논의 중에 ‘동격의 개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제화나 관계화, 내포문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격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도 미세한 기능과 의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해버린 경우가 많다. 앞서 제시한 (1)을 자세히 살펴보면 (1ㄱ)의 경우 후행요소가 선행요소를 다시 나타내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일종의 강조 효과를 보인다. 반면 (1ㄴ)에서는 후행요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선행요소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꾸며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한국어의 동격 구성은 개념 및 범위가 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부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동격 구성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동격 구성의 실례를 찾아 그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이를 통해 강한 생산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동격 구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격 구성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즉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동격의 언어학적인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선 논리학에서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同格’이라는 용어에서 연상되는 ‘동일성, 동질성, 유사성’ 등이 논리학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논리학에서는 동의개념(identical concept)과 등치개념(equipollent concept)이 개념 간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동의개념은 일명 동일개념이라고도 하며 개념의 내포와 외연¹⁾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내포는 다르지만 지시하는 외연이 같은 두 개념의 경우에 대해서는 등치개념관계를 이룬다고 말한다.

- (2) ㄱ. 아버이와 부모, 세모와 삼각형, 서울과 한국의 수도.
ㄴ. 미국의 현 대통령과 부시²⁾

류명걸(2003)에서는 (2ㄱ)을 동의개념의 예로, (2ㄴ)을 등치개념의 예로 제시하였다.³⁾ 이 논리학의 개념들을 그대로 언어학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들을 통해 동격의 개념을 정리할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동격 구성을 다룬 언어학적 연구들을 살펴보자. 라틴문법에서는 ‘the City of Rome’과 같은 표현을 동격적 소유(appositional genitive)라 칭한 바 있는데, Otto Jespersen은 저서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II』에서 이 용어를 이어 받아 ‘of’에 대해 ‘appositional’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동격’은 구성이 갖는 특성을 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일한 어휘 요소인 ‘of’에 대한 용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the three of us’와 같은 표현이 *‘the three we’로 표현될 수 없으며 반드시 appositional인 ‘of’를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이 요소가 잉여적이지 않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Bloomfield(1933:186)에서는 동격을 ‘병렬적으로 결합된 형태들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경우’라 정의하고, 의미적인 동등은 고려하지 않았다.⁴⁾

- (3) ㄱ. John [,] the poor boy.

1) 류명걸(2003:47)에서는 내포를 개념이 지닌 의미, 개념의 내용이라 정의했고, 외연은 주어진 개념을 만족하게 하는 개체의 집합이라 했다.
2)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3) 이 경우, 이 문장이 작성된 당시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두 요소는 일치하는 외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납득할만하다.
4) The term apposition is used when paratactically joined forms are grammatically, but not in meaning, equivalent.

ㄴ. King John, John Brown, John the Baptist, Mr. Brown, Mount Everest

(3ㄱ)은 Bloomfield(1933)에서 제시한 동격 구성의 예로, 이 구성에서 후행하는 요소는 삽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선행요소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3ㄴ) 역시 동격으로 인정한 예들이다. 이들은 휴지나 역양이 없는 닫힌 동격(close apposition)이라 불렀다. Bloomfield(1933)의 정의는 apposition이 가진 ‘병렬, 나열, 부가’ 등의 사전적 의미에 잘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동격에 대한 언급은 최현배(1937)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동격에 대하여 ‘한 월 가운데서 한 가지의 조각이 여럿이 같은 자격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여 나란히 서는 것을 같은자리(同位, 同格)를 잡았다 하며, 그 같은 자리를 잡은 말을 같은자리말(同位語, 同格語)이라 한다’고 정의하였다.

(4) 北岳山, 駱駝山, 木覓山, 仁王山이 사방을 둘러 있다.

덕수가 중이, 붓, 벼루를 가지고 온다.

(4)의 예들을 보면 명사구가 의미와는 관련 없이 같은 자리, 즉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최현배(1937)은 ‘同格’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아주 잘 맞는 설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같은자리말’들은 의미적으로는 아무런 동일성을 보이지 않기에 이 정의가 의미적인 동일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영어의 ‘apposi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같은자리’의 성격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 John, my son is a good boy.

내 아들 복수는 착한 아이이다.

이 경우 한국어의 ‘내 아들’과 ‘복수’는 같은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꾸미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영어의 apposition과 한국어의 같은자리말은 서로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최현배(1937)의 주장이 격의 동일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Bloomfield(1933)과 최현배(1937)은 의미적 정보를 배제하고 통사적 정보만으로 동격을 설명하려 했지만, Quirk et al.(1972, 1973, 1985)에서는 동격의 정의에 의미적인 정보를 도입하였다. Quirk et al.(1972, 1973)은 동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 Quirk et al.(1972:620)에서는 ‘동격(apposition)은 둘 이상의 요소가 같은 층위에서 구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대등접속(coordination)과 비슷하나, 보통 동일한 지시(reference)를 갖거나 하나의 지시가 다른 하나의 지시를 포함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등접속과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6) ㄱ. Paul Jones, the distinguished art critic, died in his sleep last night.

ㄴ. They returned to their birthplace, their place of residence, the country of which they were citizens.

(6ㄱ)에서 ‘Paul Jones’와 ‘the distinguished art critic’은 동일한 인물을 나타낸다. 즉, (6ㄱ)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격 구성이다. 그리고 (6ㄴ)은 Quirk et al.(1972:625)에서 세 요소가 동격을 이루는 예로 제시한 경우이다. 이들 역시 모든 요소의 지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격 구성이라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Quirk et al.(1972)에서는 이러한 동격 관계의 심층에는 강조의 의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Quirk et al.(1985:1300-1302)에서는 동격이 기본적으로 명사구 사이의 관계라고 전제하고, 그 명사구들이 보통 지시적인 동일성(identical in reference)을 갖는다고 하였다.

(7) ㄱ. Anna, my best friend, was here last night.

ㄴ. A neighbour, Fred Brick is on the telephone.

ㄷ. Fred Brick is a neighbour.

(7ㄱ)에서 ‘Anna’와 ‘my best friend’는 명백하게 동일한 지시를 갖는다. 그리고

Quirk et al.(1985)에서는 (7ㄴ)의 경우 ‘Fred Brick’이 ‘a neighbour’가 지시하는 개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⁵⁾ Quirk et al.(1985)에서는 이러한 동격 관계가 (7ㄷ)과 같이 계사 관계(copula relationship)로 분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의 논의 중 이러한 동격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서정수(1996)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동격 관계를 ‘일반으로 한 명사구가 동일 지시 관계에 있는 단 명사구를 한정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서정수(1996)에서는 한정하는 명사구를 동격구(appositive phrase), 한정되는 명사구를 머리(Head)라 칭하고 ‘대통령 친구’ 등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과 ‘친구’가 동일 지시(identical reference) 관계에 있을 경우 그 두 명사구는 동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동격구이고 ‘친구’는 머리이며. 전자는 대개 후자를 한정하는 기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말의 동격 관계를 그 구성 방식 및 성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8) ㄱ. 대학생 아들, 시인 황진이

ㄴ. 나 대통령, 나 회장, 나 김정수, 우리 한국인

ㄷ. 정열달 선생, 김구 할아버지

ㄹ. 서울 특별시, 백두 산, 한 강

ㅁ. 내 동생인 철수, 사랑 또는 애정

(8ㄱ)의 경우는 일반 명사구끼리 또는 일반 명사구와 고유 명사의 동격 구조이고 (8ㄴ)은 대명사가 관련되는 동격 구조이다. (8ㄷ)은 고유 인명과 칭호, 직함의 동격 구조이며 (8ㄹ)은 지명과 행정 구역명의 동격 구조이다. (8ㅁ)은 명시적 표지가 개입되는 동격 구조의 예이다. 서정수(1995)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동일 지시 명사구의 동격 구성을 다룬 시도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8ㄷ)과 같이 명사구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예들까지 모두 동격 명사구 속에 포함시킨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동격 구성을 논한 최근의 논의로는 이선웅(2007b)가 있다. 여

5) 그러나 ‘Fred Brick’의 지시가 ‘a neighbour’의 지시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Quirk et al.(1985)에서는 ‘a neighbour’로 가리킬 수 있는 여러 지시체 중에 ‘Fred Brick’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서 다른 동격의 개념은 Quirk et al.(1985), 서정수(1996)의 동격 개념과 거의 흡사한데, 여기에 ‘아무런 접속어가 없는 순수한 NP 병렬’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흔히 ‘동격 관형사절, 동격절 구성’이라 불리기도 하는 ‘명사구 보문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의미론적으로 선행 보문이 후행 핵 명사의 내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명명일 뿐이므로 통사적으로 유의미한 부류로 정의하기에는 정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선웅(2007b)에서는 동격 구성이란 통사적, 의미적으로 동시에 제한된 자연부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격, 동격 구성, 동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9) ㄱ. 동격: 언어 외적으로 동지시적인 둘 이상의 명사구가 각 명사구의 중간에 아무런 언어 형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현상.
- ㄴ. 동격 구성(=동격 명사구): 동격을 통해 이루어진 명사구 성분.
- ㄷ. 동격어: 동격 구성 내부에 있는 각 명사구.

이선웅(2007b)는 동격 구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ㄱ. 라틴문법과 Otto Jespersen의 주장에서는 동격(appositional)을 어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 ㄴ. Bloomfield(1933)과 최현배(1937)에서는 요소들의 격 또는 문법적인 정보가 동일한 경우를 동격이라 보았으며 의미적 정보는 배제하였다.
- ㄷ. Quirk et al.(1972, 1973, 1985)에서는 동일 지시성이라는 의미적 정보를 도입하여 동격을 정의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서정수(1996), 이선웅(2007b) 등이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동격에 대해 논의했다.

2. 기본 논의

2.1. 동격 구성의 정의 및 범위

2.1.1. 동격 구성의 정의

앞서 기존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격의 개념은 ‘어휘에 대한 것’에서 ‘구성에 대한 것’으로 발달하였으며, 순수한 통사적 개념에서 의미적 정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여기서는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 보고자하는 동격 구성의 정의를 세우는 작업을 하려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라틴문법과 Otto Jespersen의 동격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논의에서는 한 요소에 대한 명칭으로 ‘동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동격’이 가진 어떠한 특성은 어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요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라 생각된다.

(11) ㄱ. the City of Rome

ㄱ'. *the City Rome

ㄴ. 내 아들인 복수

ㄴ'. 내 아들 복수

(11ㄱ)은 Otto Jespersen이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II』에서 든 appositional의 예인데,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는 appositional인 ‘of’에 의해 동격을 이룬다. 즉, 여기서 동격은 ‘of’가 부여하는 속성으로 파악된다. 만약 동격의 동일성이 사이에 개입하는 어떤 어휘 또는 요소가 부여

하는 특성이려면 한국어에서는 (11ㄴ)과 같은 ‘계사+관형사형 어미’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1ㄱ')과 같이 ‘of’는 생략될 경우 동격의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 되어버린다. 반면 (11ㄴ)의 경우에는 이 요소를 생략하더라도 (11ㄴ')과 같이 정상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으며 동격의 기능도 유지된다.⁶⁾ 이것은 동격이 어휘나 요소에 의해 부여되는 특징이 아니라 두 요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동격은 ‘어휘’가 아닌 ‘구성’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기존 논의에서 다뤄온 동격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NP⁷⁾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Quirk et al.(1985)나 이선웅(2007b)와 같이 동격 구성의 대상이 명사구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둔 경우는 물론이고,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은 논의들도 고찰한 대상은 NP에 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도 동격을 이루는 요소가 대체로 NP라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어떤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NP 구성에서 가장 많고, 그 특성도 가장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연구의 대상은 NP에 한정하기로 한다.⁸⁾

다음으로는 국어의 NP 구성에 어떤 부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격 구성의 요소를 NP로 한정한다면, 당연히 이 구성은 국어의 NP 구성 속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의 NP 구성의 부류를 확인함으로써 동격 구성의 성격을 어느

6) (11ㄴ')이 동격 구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양상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임시로 이 경우를 동격 구성으로 본다.

7) 본고에서 NP는 체언 및 체언을 핵으로 삼은 구를 포함한다. 즉, 본고의 NP는 체언 상당 요소라 할 수 있다.

8)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NP가 아닌 것이 동격 구성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도 있다.

예) 이승엽 선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연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에서 밑줄 그은 두 관형어는 거의 흡사한 개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격 관형사구라 부를 여지가 있다. 김영희(1998:329-330)에서도 ‘밝은, 아주 밝은’ 등의 표현에 대해 관형사나 부사의 동격이라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NP에 의한 동격 구성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우선 이들은 대부분 유의어나 동일한 표현의 반복으로 나타나지만, NP에 의한 동격 구성에서 유의어나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일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동격 구성에서는 후술하게 될 ‘동일 지시성’이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데, 관형사나 부사의 지시 개념은 명사의 경우와는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본고의 동격 구성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균(2005:78-80)에서는 국어 명사구의 내부 구조를 살펴 그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2) ㄱ. 관형 구성

관형사가 수식하는 경우 : 그 소식, 첫 만남, 저 새 책, 그 겨울 바다 등

동사의 관형사형이 수식하는 경우 : 하얀 손수건, 내가 저지른 일 등

관형격 명사구 : 아이(의) 울음, 철수(의) 책, 학교(의) 운동장 등

동격 명사구 구성 : 가난뱅이 아버지, 부자 아들, 국군 아저씨 등

ㄴ. 병렬 구성

조사에 의한 것 : 봄과 가을, 밥하고 떡, 사과도 배도 감도 등

부사, 의존명사, 동사 활용형에 의한 것 : 국장 겸 과장, 이사장 및 이사, 사과
말고 배 등

여기서 설정된 동격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차치해두고, 우선은 명사구를 크게 나누는 부분에 주목하기로 한다. 김인균(2005)는 국어 명사구를 관형 구성과 병렬 구성의 두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격 구성은 관형 구성이거나 병렬 구성, 둘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격이 둘 중 어느 쪽에 속할지 고심해보아야 한다.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인균(2005)에서는 동격 명사구 구성을 관형 구성 속에 포함시켰다. 이 논의에서는 동격 명사구를 ‘두 구성 성분이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며 연결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동격을 이루는 명사구들은 통사적으로 같은 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격(appositive)을 가지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두 구성 성분이 하나의 개체를 나타낸다’는 말은 기존의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 ‘동일 지시’를 말한다. 즉, 이 정의에는 의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순수하게 통사적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명사구 구성’을 정의한다면, 동격 구성은 격의 동일성을 가지는 병렬 구성에 속해야 한다. 관형 구성의 경우 두 요소 사이의 통사적 동일성을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를 위해 앞서 언급했던 예시들을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 (13) ㄱ. 北岳山, 駱駝山, 木覓山, 仁王山이 사방을 둘러 있다.
 ㄴ. 덕수가 줄이, 붓, 벼루를 가지고 온다.
 ㄷ. 학교(의) 운동장이 어제 폭우로 진흙탕이 되었다.

(13ㄱ, ㄴ)은 최현배(1937)의 ‘같은자리말’인데 지금은 보통 병렬 구성으로 분류된다. (13ㄱ)은 각 요소가 동일하게 주격으로, (13ㄴ)은 목적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각 요소가 격에 있어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13ㄷ)과 같은 관형 구성에서는 각 요소 사이에 통사적 동일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법 기술에서 동격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병렬’이라는 기존의 용어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개념을 동격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은 문법 기술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격의 동일성만을 강조한 정의로는 병렬 구성과는 다른, 동격 구성만의 특징을 전혀 보여줄 수 없다. 즉, 순수한 통사적 정보만으로는 동격 구성의 정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성이 나타나는 것은 동격 구성의 요소들이 이루는 ‘동격’ 관계가 순수한 통사적인 관계가 아닌, 의미적인 정보를 포함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동격에 대한 정의가 의미적 정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적 정보만으로는 유의미하게 동격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Quirk et al.(1972, 1973, 1985)에서 동격 정의에 사용된 의미적 정보, 즉 동일 지시성을 받아들여기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동격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둘 이상의 명사구가 갖는 관계’라 1차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적인 정의가 정밀하다고는 할 수는 없기에 정밀화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동격 구성의 개념을 정밀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시(reference)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시는 Frege(1892)의 ‘기호와 지시체(referent) 사이의 관계’로 정의된다. 본고에서도 지시의 개념은 Frege(1892)를 기반으로 하기로 한다. 신지연(2008)에서는 지시 개념에 대해 ‘지시체⁹⁾가 현장에 존

9) 신지연(2008)에서는 referent를 ‘지시물’이라 불렀다. 여기서는 통일성을 위해 이를 ‘지시체’

재할 수도 있고 상맥(想脈)에 있을 수도 있으며 문맥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시는 구체물로 존재하지 않은 대상이나 추상적 개념이라 할 지라도 아울러 가리킬 수 있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4) ㄱ.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는 악스수니온에는 카잔차키스가 말하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ㄴ. 그 습기 그거 넣었어?

(14ㄱ)에서 밑줄 그은 '바다의 신'과 '포세이돈'은 구체적인 지시체를 갖지 않지만, 언어 사용자의 상념 속에 그 지시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4ㄴ)은 구어 말뭉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인데, 문맥에 의해서 그 가리키는 바가 '습기제거제'임을 알 수 있다. 지시를 기호와 지시체 간의 관계라 본다면, (14ㄴ)과 같이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일지라도 동일한 지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동일성'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동격 구성을 정의해도 될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Quirk et al.(1972)에서는 동격 구성을 몇몇 기준에 따라 부류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동격 구성 요소가 생략 또는 분리를 할 때 본래의 문장에 아무런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각각 문장에서 동일한 통사 기능을 하며, 각 요소를 분리한 문장들 사이에 언어 외적인 지시 차이가 없을 경우를 완전 동격(Full apposition)이라 칭했다. 이선웅(2007b)에서도 이 개념을 가져와 완전 동격을 설정하고 있다.

(15) 나 김영삼, 저들 반역자

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10) 이 예문은 구어 말뭉치에서 찾은 것인데, 화자가 어떻게 발화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습기'를 '습기제거제'의 부정확한 표현으로 보고, 동격 구성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제거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리채우미(placeholders)' 형식으로 '그것'이 사용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습기'와 '그것' 사이에 긴 휴지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를 동격 구성이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말뭉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본고에서는 일단 이 발언이 '습기'만으로 '습기제거제'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5)은 이선웅(2007b)에서 제시한 완전 동격의 예이다. 이 완전 동격은 동격 구성이 갖는 ‘동일성’의 측면을 극대화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 동격을 이루는 조건들은 이 구성들을 문장 안에서 조작했을 때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¹¹⁾ 그런데 여기서는 이 구성들이 문장 안에서 실제로 완전 동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6) ㄱ. 나 김영삼은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ㄴ. 나는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ㄴ'. 김영삼은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16ㄱ)은 (15)의 예가 실제 문장 속에서 실현되는 경우들이며 (16ㄴ)과 (16ㄴ')은 (16ㄱ)의 명사구를 분리하여 문장을 이룬 것이다. (16ㄱ)의 밑줄 친 NP들은 동일한 지시를 가지기에 동격 구성이라 할 수 있지만, 완전 동격인지는 더 고심해보아야 한다. 이들이 완전 동격이 되려면 한 요소가 생략된 (16ㄴ,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이 동일한 지시를 가져야 한다. (16ㄴ)에서 ‘나’는 발화자 본인을 가리키며 (16ㄴ')의 ‘김영삼’은 ‘김영삼’이라는 지시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일한 지시를 가지려면 ‘발화자가 김영삼’이라는 문맥적인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시킬 경우에만 (16ㄱ)의 두 요소가 완전 동격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11) 노마 히데키(1996:134-135)에서는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언어활동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최소 단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그 자체로서 발화를 이루고 텍스트를 이룰 수 있다. 단어는 일어문(一語文)의 경우에도 문장으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비로소 문장이 되고 발화가 될 수 있다.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모습을 취하면서 발화 안에 현상(現象)한다. 단어는 문장이라는 문법적인 망(grammatical net) 안에 짜서 넣어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장의 구성 요소인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만 문법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동격 구성 역시 문장 안에서 나타나야 그 기능과 특성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 즉, 단순히 둘 이상의 NP를 결합시킨 형태만으로는 동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고 문장 내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구성으로 나타날 때만 동격 구성 여부와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16ㄴ)과 (16ㄴ')이 동일한 지시를 갖는 것은 이론에 입각한 체계문(system sentence)로서만 가능하다. 발화자가 '김영삼'일 경우 (16ㄴ')과 같은 문장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쓰임문(text sentence)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¹²⁾ 즉, (16ㄱ)은 체계문으로서만 완전 동격이라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사용되는 쓰임문으로서의 완전 동격이라 하기 어렵다.

(17) ㄱ. 요게, 요게 근까 성문이 짝 열렸다 줄어들고.

ㄴ. 요게, 근까 성문이 짝 열렸다 줄어들고.

(17ㄱ)은 구어 말뭉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시들 중 하나이다. 여기서 밑줄 친 두 '요것'은 동일한 지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17ㄴ)과 같이 분리하거나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에 이상이 없다. 또 분리하거나 생략해도 그 지시가 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리한 문장도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이라 하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17ㄱ)은 체계문으로서도, 쓰임문으로서도 완전 동격이라 하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예를 동격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까지 인정한다면, 모든 반복 표현을 완전 동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잉여적인 요소를 반복한 구성들도 동격으로 인정해야 하는 오류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동격의 정의에 있어서는 동일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일성은 동격 구성이 가진 요소들 간의 관계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범위나 기능을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구성 안에서 한 요소가 잉여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요소만의 기능, 즉 다른 요소들과 차별성이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격을 이루는 NP들 역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앞서 1.2에 제시한 논리학의 등치개념이 이 차별성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등치개념은 외연이 동일하고 내포가 다른 개념인데 본고는 동격

12) 임흥빈·장소원(1995:209-210)에서는 담화 상황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장을 쓰임문, 문법 모델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구성된 문장을 체계문이라 하였다.

구성의 성격이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즉 동격 구성을 이루는 NP들은 동일한 지시와 함께 서로 차이가 나는 ‘의의(sense)’를 갖는다.

Frege(1975/1892)에서는 ‘evening star’와 ‘morning star’가 동일한 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며, 의의를 표상의 양식(the mode of presentation)이라 설명한다. 즉, 의의는 어떤 표현의 대응물을 상황에 따라 정의하는 속성들이라 할 수 있다.

(18)

명사구	지시	의의
the morning star	금성	아침에 가장 늦게까지 보이는 별의 개념
the evening star	금성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의 개념

이성범(1999:133)에서는 ‘the morning star’와 ‘the evening star’가 보이는 지시와 의의를 (18)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이들 명사구는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지만 그 의의는 각각 다르다.

지시와 의의 개념을 앞서 제시한 예들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19) ㄱ. 나 김영삼은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ㄴ. 요게, 요게 근까 성문이 짝 열렸다 줄어들고.

(19ㄱ)의 밑줄 친 ‘나’와 ‘김영삼’은 화자가 ‘김영삼’인 맥락에서 분명 지시의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선행요소는 화자 본인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고, 후행요소는 한 개체를 명시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서로 다르다. 반면 (19ㄴ)에서 두 ‘요것’은 지시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의의까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문에 (19ㄴ)의 반복된 ‘요게’는 문체적인 효과 외에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요소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동격 구성은 구성을 이루는 각 NP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시에 차별화된 의의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진 NP들을 모두 동격으로 볼 것인지 의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통사적인 정보만으로는 동격 구성을 유의미하게 정의할 수 없음을 확인했는데, 이 점은 의미적인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20) ㄱ. 철수는 자신을 사랑한다.

ㄴ.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운 옥수수가 팔뚝만하다고 자랑하곤 했다. 그것은 정말로 컸다.

ㄷ. 나 김영삼은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ㄷ'. 나는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ㄷ". 김영삼은 오늘 일찍 퇴근할 생각이다.

(20ㄱ)의 경우 밑줄 그은 두 NP는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미적인 정보만으로 동격 구성을 정의한다면 이 역시 동격 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요소는 주어, 후행요소는 목적어로 별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각 요소가 별개의 통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 동격 구성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20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요소 사이에 문장 경계가 위치하고 있다. 즉, ‘옥수수’는 선행 문장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문장에서 별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시를 가진다고 해도 문장의 범위를 벗어난 요소들은 동격 구성을 이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동격 구성은 문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각 요소의 통사적 기능이 개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동격 구성은 하나의 ‘구성’으로서 각 요소와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 (20ㄷ)은 (19)에서 제시한 동격 구성인데, (20ㄷ', ㄷ")을 통해 각 요소들이 동일하게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격 구성도 (20ㄷ)과 같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격 구성이 통사적으로 동일한 격을 갖는 ‘병렬 구성’과 비슷한 성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³⁾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한 동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ㄱ. 동격은 둘 이상의 NP가 갖는 관계이다.

ㄴ.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격 구성은 문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각 요소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며 이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동격 구성 역시 이들과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낸다.

ㄷ.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

(21)은 동격 구성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특징들이며 동시에 동격 구성에 대한 본고의 정의가 될 수 있다. 즉 동격 구성은 ‘동일한 통사적 기능과 동일한 지시를 가지며, 동시에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 NP들이 이룬 구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격 구성은 특정 문법 영역의 단독적인 정보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으며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인 정보를 함께 사용해야 정의할 수 있는 구성이다.

2.1.2. 동격 구성의 범위

여기서는 2.1.1에서 정의한 동격 구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동격과 함께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동격 구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먼저 동격 관형사절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격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사절과 함께 한국어의 관형사절 종류 중 하나¹⁴⁾로 받아들여지는데, ‘명사구 보문, 동격절’ 등으

13) 동격 구성은 통사적으로 병렬 구성과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일반적인 병렬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14)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관형사절의 하위 부류로 ‘연계절’을 설정하여 삼분하기도 했다.

로 불리기도 한다. 동격 관형사절은 ‘소문, 낭설, 소식, 연락, 질문, 보도, 정보, 독촉, 명령, 고백, 사실, 약점, 기억’ 등 특정한 명사들 앞에서 나타난다.

(22) ㄱ. 두 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졌던 철수가 이번에는 합격했다.

ㄱ'. 철수가 합격했다.

ㄴ. 철수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다.

ㄴ'. *소문이 있다.

(22ㄱ)은 관계 관형사절 구성인데 (22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형사절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이 성립된다. 반면 동격 관형사절 구성인 (22ㄴ)의 경우 관형사절이 삭제된 (22ㄴ')은 부적합한 문장이 되어버린다. (22ㄴ)과 같은 관형사절 구성을 ‘동격’으로 칭하게 된 것은 선행하는 관형사절이 후행하는 명사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동격 관형사절 구성은 앞서 정의한 동격 구성과는 차이가 크다. 2.1.1에서 우리는 동격이 NP들 사이의 관계라고 한정하였다. 그런데 동격 관형사절에 의한 구성은 관형사절과 NP에 의한 구성이기에 본고에서 설정한 범위를 벗어난다.¹⁵⁾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격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은 동일한 격, 즉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갖지만 동격 관형사절 구성의 요소들은 서로 다른 통사적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소문’의 지시가 ‘철수가 시험에서 떨어졌다’의 지시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격 관형사절에 의한 구성을 동격 구성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섭·채완(1999)나 고영근·남기심(1985) 등 많은 논의에서는 관형사절을 양분하여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을 설정하고 있다.

15) 중세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절 또는 문장이 단어(또는 NP)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격 관형사절의 뒤에 속격조사 ‘-시’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 ㄱ. 곧 佛이 受用이라 ㅎ삼 들흔 잇논 짜히 곧 부터 겨샤미 ㄷ외닷 ㅍ디시니라
<法華5:213a>

ㄴ. 頭陀는 떠러브리닷 마리니 煩惱를 떠러브릴 씨라<法華1:32a>

이 경우 NP처럼 인식된 선행요소와 머리 명사가 동격 구성을 이룬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절이나 문장이 하나의 NP처럼 인식되어 동격 구성을 이루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수사 및 수량사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익섭(19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량사구를 포함한 구성을 동격 구성이라 주장한 바 있다.

- (23) ㄱ. 장미 다섯 송이를 샀다.
- ㄱ'. 장미를 다섯 송이를 샀다.
- ㄴ. 장미 다섯을 샀다.

이익섭(1973)에 따르면 (23ㄱ)과 같은 수량사문에서 NP2는 NP1을 다시 반복·구체화하는 동격 관계이며, NP2에서 진정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송이’와 같은 수량사이다. 수량사 앞의 수사는 이들을 수량상으로 제한하는 구실을 할 뿐이며, (23ㄴ)과 같이 수량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후행하는 NP에 수량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익섭(1973)에서 이 명사구들을 동격 관계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문장성분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23ㄱ')과 같이 각 명사구에 동일한 격조사가 연결될 수 있는데, 한 명사구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동일한 격조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익섭(1973)에서는 통사적인 정보만을 포함한 동격 구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론에서 소개한 최현배(1937)의 논의와 유사하다.

이제 2.1.1에서 제시한 동격 구성의 정의에 입각하여 수사 및 수량사 구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형태적으로 수사 및 수량사 구성은 명사,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체언에 해당되므로 동격 구성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함께 나타난 요소와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 (24) ㄱ. *다섯 다섯을 샀다.
- ㄱ'. *다섯 다섯 송이를 샀다.
- ㄴ. 다섯 장미를 샀다.
- ㄴ'. ?다섯을 장미를 샀다.

- ㄴ". ??다섯을 샀다. / 장미를 샀다.
- ㄷ. 다섯 송이 장미를 샀다.
- ㄷ'. ?다섯 송이를 장미를 샀다.
- ㄷ". ??다섯 송이를 샀다. / 장미를 샀다.

(24)은 수사나 수량사구가 선행요소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살펴본 것이다. (24ㄱ)은 수사끼리의 묶어본 것인데 정상적인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수량사구가 후행한 (24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사나 수량사구끼리는 한 구성을 이루지 못함을 보여준다. (23ㄴ)은 수사와 명사의 결합인데, 각각에 목적격을 부여한 (24ㄴ') 경우 어색해지거나 (24ㄴ)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또한 각각의 요소에 목적격을 상정하여 문장으로 나눈 (24ㄴ")은 성립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량사구 구성인 (24ㄷ)도 마찬가지이다.

- (25) ㄱ. 장미 다섯을 샀다.
- ㄱ'. 장미를 다섯을 샀다.
- ㄱ". 장미를 샀다. / ??다섯을 샀다.
- ㄴ. 장미 다섯 송이를 샀다.
- ㄴ'. 장미를 다섯 송이를 샀다.
- ㄴ". 장미를 샀다. / ??다섯 송이를 샀다.

(25)는 수사나 수량사구가 후행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수사가 후행한 (25ㄱ)의 경우 (25ㄱ')과 같이 동일한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25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을 목적격으로 삼아 문장을 만들어보면 그 성립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25ㄱ)의 명사와 수사는 동일한 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25ㄴ)의 수량사구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25ㄴ')과 같이 동일한 조사를 결합시켜 표현할 수 있지만 (25ㄴ")과 같이 별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성립 여부가 달라

16) (24ㄴ')은 '꽃 열 송이를 샀는데, 그 중에 다섯을 장미를 샀어'와 같은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즉, 별개의 맥락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24ㄴ)과는 다소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진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수사나 수량사구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동격 구성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¹⁷⁾

또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재귀대명사에 대한 것이다. 이익섭(2004)에서는 재귀대명사에 대해 ‘앞에 나온 말, 즉 선행사를 다시 받되 일반 대명사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형태를 띤 대명사’라 정의하였으며, 3인칭에서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재귀대명사에는 ‘저, 자기, 당신’이 있으나 이 중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선행사가 주어일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재귀대명사가 동격 구성을 이루려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26) ㄱ. 철수는 자기의 일도 못한다.

ㄴ. 철수 자기는 지 일도 잘 못하면서 웬 참견이래?

ㄴ'. 자기는 지 일도 잘 못하면서 웬 참견이래?

ㄴ". *철수가 자기가 지 일도 잘 못하면서 웬 참견이래?

(26ㄱ)에서는 재귀대명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온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으며, 지시 대상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 경우, 선행요소 ‘철수’와 후행요소 ‘자기’의 통사적인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 ‘철수’는 주어 기능을, ‘자기’는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격 구성의 통사적인 특성에 어긋난다. (26ㄴ)은 재귀대명사가 동격 구성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를 구어체로 설정해본 것인데, 수용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그런데 세심하게 살펴보면, (26ㄴ)은 (26ㄴ')이 가능한 맥락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의 ‘자기’는 이미 맥락을 통해 지시하는 바가 정해져 있는 ‘철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26ㄴ)에서 선행한 ‘철수’는 재귀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명시적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일 뿐, ‘자기’와 동일한 격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6ㄴ")은 선행요소 ‘철수’와 후행요소 ‘자기’에 동일한 조사를 연결해본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이 두 요소가 동일한 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17) 의미적인 차원에서도 수사나 수량사구는 동격 구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정민(1999) 등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형식의미론에서 수사나 수량사구는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나 수량사구는 선행하는 명사의 수치적인 정보를 보이는 기능을 할 뿐이며 동일 지시를 갖는 동격 구성의 요소로 기능하지 못한다.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격 구성의 통사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재귀 대명사 구성은 동격 구성에서 제외한다.¹⁸⁾

마지막으로 제시어(提示語)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김영희(1998)에서는 주제어 구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통사적 차이점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어 구문이라 하였다.

- (27) ㄱ. 충무공은 온 백성이 안다.
- ㄴ. 충무공, 온 백성이 그를 안다.

김영희 (1998:355)에서는 주제어 구문의 예로 (27ㄱ)을 제시하였는데 구성상 주제어와 평설(comment)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기능상 평설로 표현되는 내용이 주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하였다. (27ㄴ)의 제시어 구문도 이와 비슷하여 문두에서 휴지를 대동하고 있는 성분이 주제어, 그 뒤에 오는 부분은 평설인 것처럼 보이며 사용기능도 평설 부분이 문두의 성분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의 통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주제어는 주제 표지 ‘은/는’에 의해 표시되나 제시어는 휴지가 수반되어 있다는 점, 주제어는 뒤따르는 평설과 더불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지만 제시어는 별개의 성분으로 이해된다는 점, 주제어는 문장 내부에 자신과 조응 관계에 있는 조응사를 갖지 않으나 제시어는 가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선용 (2005)에서도 제시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독립어 성분인 명사구 혹은 명사구 상당어가 아무런 표식 없이 쓰이고 그 뒤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관여적인 서술이 나올 때, 그 독립어 명사구를 제시어라 한다’고 정의하였다.

18) ‘본인, 자신’ 등과 같은 재귀성 명사들은 재귀대명사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철수 자신’과 같은 표현이 하나의 격을 가지고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을 나누어 격을 부여한 문장이 비문이 되어버리기에, 이들 역시 동격 구성의 요소로 인정될 수 없다.

예) 철수 자신은 이 일에 찬성하지만…
 철수는 이 일에 찬성하지만… / *자신은 이 일에 찬성하지만…

- (28) ㄱ.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ㄴ. 청춘, 듣기만 해도 피가 끓는다.

이선웅(2005)에서는 동일 지시¹⁹⁾의 명사구가 후행하는 (28ㄱ)과 같은 예를 엄격한 제시어로, (28ㄴ)의 경우를 미약한 제시어로 보았다.

그런데 (28ㄱ)의 경우, 밑줄 그은 두 요소가 동일하게 NP이며 지시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동격 구성과 비슷한 면모가 있다. 다만 제시어를 독립성분으로 파악하는 한²⁰⁾ 이를 동격 구성으로 속단하기는 힘들다.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통사 기능을 나타내어야 하는 동격 구성 요소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어는 문장의 주제어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점과 표기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대동하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완전히 문장 바깥의 존재인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시어가 동격 구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28ㄱ)과 같이 동일 지시의 NP가 명시적으로 후행하는 경우에는 동격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2.2. 동격 확인 요소

2.2.1. 요소 개입의 가능성

이선웅(2007b), 김인균(2009)에서는 동격 구성을 ‘아무런 언어 요소를 사이에 개입시키지 않은 순수한 NP’의 병렬이라 정의하였다. 그런데 ‘왜 사이에 언어요소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 어렵다. 다만 이선웅(2007b)에서는 사이에 ‘즉, 곧’ 등이 삽입된 구성을 동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19) 이선웅(2005)에서는 ‘동지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동일 지시’를 사용했다.

20) 김영희(1999/1989), 이선웅(2005) 등에서 제시어는 독립성분으로 규정되었다.

대해 첫째 ‘즉, 곧’이 공형태소(empty morpheme)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는 점, 둘째 ‘즉, 곧’을 개입시킨 명사구가 별개의 조사를 가진 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29) ㄱ. 너의 형, 즉 그 시인

ㄱ'. 너의 형이, 즉 그 시인이

ㄴ. 저들 반역자가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 반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 즉 반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이, 즉 반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선웅(2007b)에 따르면 (29ㄱ)이 동격이 아닌 이유는 ‘즉’이 개입되었다는 것과 (29ㄱ')이 가능하기 때문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즉’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 구성의 요소들이 NP라는 점,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동일 지시를 가진다는 점과 아무런 필연성이 없어 보인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선웅(2007b)에서 부여한 조건인 셈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동격으로 인정한 구성 속에서도 나타나다는 점이다. (29ㄴ)은 이선웅(2007b)에서 완전 동격으로 제시한 경우를 문장 속에서 나타내 본 것이다. 이 경우 자칫 수(數)의 불일치 때문에 각 요소가 이질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시로 (29ㄴ')를 상정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이것을 (29ㄴ")와 같이 바꾼다고 해서, 여전히 동격 구성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구성이 동격의 관계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없다. (29ㄴ""는 (29ㄱ)과 마찬가지로 (29ㄴ)도 조사 결합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9ㄱ)은 동격 구성이 아닌 것으로, (29ㄴ)은 동격 구성인 것으로 판단할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 ‘즉, 그러니까’ 등의 부사어 요소가 사이에 개입하더라도 여전히 이 요소들은 동일한 지시, 차별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동일한 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전체가 이룬 구성도 각 요소와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견해에 따르면 이 구성은 얼마든지 동격 구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30) ㄱ. 그건 그렇고 아주머닌 영사관의 일본 여자, 그러니까 영사 마누라를 아시오?
 ㄴ. 뒷날, 법가에 속하는 중국의 사상가들의 주장,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로 태어나는 만큼, 반드시 가르침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파멸하고 만다는, 이른바 성악설을 배운 순간도 나에게는 그와 비슷한 적막의 순간이었다.
 ㄴ'. 뒷날, 법가에 속하는 중국의 사상가들의 주장,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로 태어나는 만큼, 반드시 가르침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파멸하고 만다는, 이른바 성악설을 배운 순간도 나에게는 그와 비슷한 적막의 순간이었다.
 ㄷ. 그건 그렇고 아주머닌 영사관의 일본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사 마누라를 아시오?

(30ㄱ)에서는 각 요소가 이 문장의 목적어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이 이룬 구성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구성은 동격 구성의 통사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성에 포함된 명사구들은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동격 구성이라 하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30ㄴ)은 두 요소가 동일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지만, 사이에 하나의 절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동격 구성으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구성을 잘 살펴보면 (30ㄴ')과 같이 개입된 절이 후행요소를 꾸며주는 관형사절임을 알 수 있다. 즉, 길이가 길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동격 구성이다. (30ㄷ)은 (30ㄱ)에서 개입 요소를 확장시켜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선·후행요소가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지고 한 문장에서 한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이 구성은 여전히 동격 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격 관계에 있는 각 NP 사이에 언어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은 본고의 입장에서는 동격 구성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개입한 요소의 길이도 동격 구성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2. 동격 확인 요소의 개념 및 특징

동격을 이루는 NP들 사이에 어떤 요소가 개입하더라도 동격 구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개입 요소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사실 이 개입 요소 중 일부는 더 적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31) ㄱ. 고객 시청자에 대한 친절은 일종의 사후 서비스이다.

ㄱ'. 고객, 시청자에 대한 친절은 일종의 사후 서비스이다.

ㄱ". 고객, 즉 시청자에 대한 친절은 일종의 사후 서비스이다.

ㄴ. ³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ㄴ'.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 음,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31ㄱ)의 경우 이 구성의 요소들이 동일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며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시청자’ 중 ‘고객’으로 분류되는 자인지, 아니면 두 명사가 동일한 지시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1ㄱ)과 같이 쉼표가 삽입될 경우, 동격 구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31ㄱ)과 같이 ‘즉’이 개입할 경우 동격 구성으로만 인식된다. 구어의 경우에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인데, (31ㄴ)은 사이에 아무런 요소의 개입 없이 즉 이어 발화할 경우 동격 구성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31ㄴ')과 같이 두 요소 사이에 휴지²¹⁾나 그에 준하는 발화 중단 표지, 또는 ‘즉, 그러니까’ 등이 올 경우 동격 구성인 것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이러한 요소의 개입은 동격 구성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구성이 동격 구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는 ‘쉼표, 즉, 그러니까’ 등이 있는데, (31ㄴ')과 같이 구어체에서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본고에서는 동격 구성을 이루는 명사구 사이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을 ‘동격 확인 요소’라고 부르기로 한다.²²⁾

21) 이선웅(2007b:171)에서도 구성 요소 사이에 깊은 휴지가 개입될 경우, 선행 명사구가 지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동격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22) 서정수(1996)에서도 명시적인 표지가 개입되어 동격 구조를 보다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명시적인 표지에는 ‘-인, 곧/즉, 또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특히’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모두 동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정도성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

동격 확인 요소는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우선 문어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 (32) 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신애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신애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ㄴ. 그의 아내는 다음 아이 지금 국민학교 사학년인 영옥이를 낳고부터는...
ㄴ'. 그의 아내는 다음 아이 즉 지금 국민학교 사학년인 영옥이를 낳고부터는...
ㄷ. 애기씨 어머님 별당아씨 말심입니다.
ㄷ'. 애기씨 어머님 그러니까 별당아씨 말심입니다.
ㄹ. 취임하자마자 불량주택지구 달동네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ㄹ'. 취임하자마자 불량주택지구 다시 말해 달동네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32ㄱ)의 경우 이 구성이 동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 쉽표가 들어간 (32ㄱ')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명사구와 후행하는 명사가 동격을 이루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2ㄴ)은 선·후행요소가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해석에 어려움을 준다. 반면 (32ㄴ')에서는 '즉'이 선·후행 명사구가 동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32ㄷ)은 선·후행요소를 동격 관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속격 관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그러니까'가 개입된 (32ㄷ')은 동격 구성으로만 해석된다. (32ㄹ) 역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32ㄹ')와 같이 '다시 말해'가 개입되면 동격 구성으로 해석된다.

구어체의 경우, 동격 확인 요소들은 문어체의 것들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 (33) ㄱ. 아니, 내 남자친구 개한테 시킨다.
ㄱ'. 아니, 내 남자친구(휴지) 개한테 시킨다.
ㄴ. 저희가 요번에 과제 레포트 주제를 한 것은 남녀 언어적 차이거든요.
ㄴ'. 저희가 요번에 과제 근까 레포트 주제를 한 것은 남녀 언어적 차이거든요.

다.

ㄷ.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ㄷ'.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 (음/그/뭐야),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33ㄱ')은 (33ㄱ)에 비해 동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는 구어체에서의 휴지가 문어체에서의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33ㄴ')에 나온 '근까'는 문어체의 '그러니까'에 해당된다. 구어체에서는 '그러니까'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근까, 그니까' 등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³⁾ (33ㄷ')은 간투사들이 개입하여 동격을 확인시켜주는 경우들인데, 이들은 일종의 발화 중단 의 표지로서 휴지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정리하자면 동격 확인 요소는 NP들 사이에 개입하여 이들이 동격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3. 분석 기준

1, 2장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간 동격 구성에 대한 연구 중 많은 수가 실제 문장에서 나타나는 구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부터 분리시킨 NP 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동격 구성은 한 문장 안에서 통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동격 구성의 실례(實例)들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분석은 실제 문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2010년 12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의 말뭉치 자료 8천만 어절로부터 동격 구성 자료들을 추출하였으며²⁴⁾ 필요에 따

23) 실제로 문어 말뭉치에서는 '그니까'는 89건이 검색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전사한 인터뷰 내용이라 문어체라 보기 힘들다. '근까'는 단 한 번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인터뷰 내용의 전사에 속해있었다. 구어체에서는 '그러니까'가 136건 검색되었는데, 이는 '근까(405)'나 '그니까(180)'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이다.

24) 자료 검색에는 EmEdito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일 지시의 NP들만을 찾아낼 방법은 없기에,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검색되는 예들을 모두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

다. 앞서 동격 구성의 요소를 NP로 한정하였는데, 이 NP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등의 명사 부류와 대명사, 그리고 이들을 핵으로 삼은 구가 포함된다.

- (35) 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신애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ㄴ. 그러나 이들 캐릭터 상품 대부분이 외국산이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35ㄱ)은 보통명사구와 고유명사가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35ㄴ)에서는 대명사와 보통명사구가 동격 구성을 이룬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은 꾸며주는 방향이 서로 다르며 이는 각 요소의 형태적인 성질과 무관하지 않다.

3장에서는 우선 문체와 기능에 따른 동격 구성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토대로 형태적인 측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4. 소결

이상에서는 동격 구성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장으로 진행하기 전에 2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동격 구성은 동격 관계에 있는 NP로 이뤄진 것으로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으로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NP들도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동격 구성을 이루는 각 NP는 동일한 지시와 차별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동격은 NP 간의 관계이므로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개입 요소들 중에는 선·후행하는 NP들이 동격 관계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동격 확인 요소라 한다.

동격 구성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체적 기준으로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뉜다. 두 번째는 기능인데 문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문체적 특성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태적 기준은 요소의 형

태적 특성과 위치에 따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3. 문체적 특성에 따른 동격 구성 분석

3.1. 문체 특성에 관한 전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범위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 장소원(1986:6)에서는 구어와 문어를 문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36)

언어	구어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문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

이 구분에 따르면 문어체 문어와 문어체 구어는 문어체에 속하고, 구어체 문어와 구어체 구어는 구어체에 속한다. 장소원(1986:15)에서는 정보의 주 내용이 구어체의 경우 개인적이고 문어체의 경우에는 기술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인 텍스트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37) ㄱ. 구어체 : 대화, 전화통화, 자문자답 등

ㄱ'. 구어체 : 연설, 광고, 편지 등

ㄴ. 문어체 : 일반저서문, 소설지문, 일기문, 시문, 공고문, 구호, 표어, 메모 등

ㄴ'. 문어체 : 연설, 광고, 편지 등

(37ㄱ)의 경우는 구어체 구어에 해당되고, (37ㄱ')은 구어체 문어, (37ㄴ)은 문어체 문어, (37ㄴ')은 문어체 구어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체에 따른 동격 구성의 양상은 장소원(1986)에서 제시된 문체 부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문어체 문어와 문어체 구어가 문어체의 문체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과 구어체 구어가 구어체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이상이 없다. 문체는 구어체 문어의 동격 구성인데, 이들은 구어체 문장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어체의 동격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구어체 구어는 모든 발화가 실시간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반영된 동격 구성들이 발견되지만, 구어체 문어에서는 그러한 특징들이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동격 확인 요소의 형태이다. 앞서 2.2.2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격 확인 요소는 문체에 따라 사용되는 양상이 다르다. 문어체 문장에서는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해’ 등과 쉼표가 사용되고, 구어체 문장에서는 ‘그니까, 근까’ 등이 주로 나타난다.

(38) ㄱ. 고객, 즉 시청자에 대한 친절은 일종의 사후 서비스이다.

ㄴ. 내분기 교란 작용이 거론되고 있는 화학 물질,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ㄷ. 어 이쪽 그니까 지도 이 밑에 쪽에.

(38ㄱ)은 문어체 문어 문장이다. 여기에서는 문어체 문장에 주로 나타나는 동격 확인 요소인 ‘즉’이 나타나 이 NP들이 동격임을 확인시켜준다. (38ㄴ)은 발표·토론에 나타난 문어체 구어 문장으로, 문어체 문장에 주로 쓰이는 ‘즉’이 나타나 문어체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어체 구어 문장인 (38ㄷ)에서는 ‘근까’가 동격 확인 요소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어체에서는 주로 ‘그러니까’의 형태로 실현된다.

(38)의 예들은 문체적 특징에 적합한 동격 확인 요소가 나타난 경우이다. 그런데 다음의 구어체 문어를 보자.

- (39) ㄱ. 애기씨 어머님, 그러니까 별당아씨 말심입니다.
 ㄴ. 이것이 바로 십무천(十毋天), 즉 열 가지 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입니다.

소설 등장인물들의 대사인 (39)은 구어체 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구어체에 속하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39ㄱ)에서는 구어체에서 보통 ‘그러니까, 근까’ 등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가 정확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39ㄴ)의 경우 구어체 문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즉’이 동격 확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구어체 문어는 동격 확인 요소가 문어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동격 확인 요소의 형태가 특이한 것은 발음의 편의 등을 고려한 구어체 특유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구어체 문어의 경우는 즉흥적(spontaneousness)²⁶⁾인 발화라기보다는 계획된 발화나 문장에 속하기 때문에 문어체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되어 ‘즉’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근까’ 등이 적게 나타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구어체 구어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동격 구성들이 나타나지만, 문어체나 구어체 문어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다.²⁷⁾

- (40) ㄱ. 근데 그거는 김차장님 말씀하신 거는 코리아 타임지도 마케팅을 지지리도 못
 해 가지구.
 ㄴ. 그 습기 그거 넣었어?
 ㄷ. 영하 이거 받았니, 새 거?
 ㄷ'. 영하 이거, 새 거 받았니?
 ㄹ. 나 개 싫어해. 누구야, 개 주인공 니콜 키드만.

(40ㄱ)의 경우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에 동일한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선행요소와 조사의 발화가 끝난 상태에서 더 명백한 표현인 ‘김차장님 말씀하신 거’라는

25) 구어 말뭉치에서 ‘즉’은 14건 검색되는데, 모두가 강연이나 발표 같은 문어체 구어에 속했다.

26) ‘spontaneousness’는 보통 자발성(自發性)으로 번역되곤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즉흥적, 즉흥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7) 소설 등장인물의 대화중에서는 구어체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문어 말뭉치에 속해있는 국회연설, 강의, 설교 등 대부분의 구어체 문어들은 구어체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후행요소를 덧붙인 구성이다. 문어체 문장에서는 이처럼 조사까지 결합해 있는 특수한 동격 구성은 거의 볼 수 없다. (40ㄴ)은 맥락상 선행요소는 ‘습기 제거제’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자, 발화를 중단하고 대용어인 ‘그것’을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역시 즉흥적인 구어체 특유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문어체 문장과 구어체 문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보기 힘들다. (40ㄷ)은 동격 구성을 이루는 한 요소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로, 본래 이 문장은 (40ㄷ')과 같은 구성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경우 ‘새 것’이라는 후행요소가 떠오르지 않다가 문장의 발화가 끝난 후에야 제대로 인식되어 덧붙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후행한 이 요소가 문장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40ㄷ)과 같이 사이에 삽표를 개입시킨다면 문장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말뭉치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²⁸⁾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어에 동격적인 성질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동격적인 성질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²⁹⁾ (40ㄷ)은 구어체 문장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문어체 문장이나 구어체 문어에서는 이처럼 동격 요소가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40ㄹ) 역시 구어체의 즉흥적인 성격이 잘 나타난 문장이다. 이 경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세 번째 요소인 ‘니콜 키드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지시를 가지지만 의의는 다른 ‘그 애, 주인공’과 같은 동격 요소들이 선행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어체 문장이나 구어체 문어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는 반복 표현이다. 구어체 문장에서는 동일한, 혹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41) ㄱ. 요계, 요계 근까 성문이 짝 열렸다 줄어들고.

28) (39ㄷ)에서 삽표는 필자에 의한 것이며, 구어 말뭉치에서는 삽표를 사용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문장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정훈(2009)에서처럼 역양을 고려해야 하는데, 말뭉치 자료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29) 이는 흔히 ‘후보충(after-thought)’이라 불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정훈(2009, 2011)에서는 후보충이 나타난 것을 구문으로 칭하며 하나의 문장으로 다루었다.

ㄴ. 방학, 초등학교 방학마다 주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거 많이 다녀지.

(41ㄱ)은 ‘요것(이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동일한 지시를 가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기에 동격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문장을 통해 구어체 문장에는 반복 표현의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1ㄴ)의 경우, 선행요소인 ‘방학’에 ‘초등학교’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인 명사구가 후행요소로 나타나 있다. 즉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동일한 지시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의의 역시 가지므로 동격 구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어체 문장이나 구어체 문어의 경우 (41)와 같은 반복 표현들이 드물며, 문학 텍스트 등에서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나 구어 전사 자료 등에서 간혹 보일 뿐이다. 이들 역시 구어체 구어가 가진 즉흥적인 성격을 문어체나 구어체 문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동격 구성의 특징은 대상 문장이 ‘즉흥적인가, 계획적인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실시 간접적이고 즉흥적인 구어체 구어 문장만을 ‘구어체’로 다루고, 다른 문체의 문장들은 모두 ‘문어체’로 다룰 것이다.

3.2. 문어체 동격 구성

3.2.1. 순행 수식 기능

앞서 2.1.1에서는 김인균(2005)에서 제시한 명사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크게 병렬 구성과 관형 구성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았다. 동격 구성은 NP끼리 결합한 구성으로 문장 안에서 NP처럼 기능한다. 김인균(2005)의 논의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동격 구성의 요소들이 병렬 관계 또는 관형 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동격 구성의 요소들이 동일한 통사적 기능, 즉 동일한 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병렬과 비슷한 면모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동격 구성을 잘 관찰해 보면 일반적인 병렬 구성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ㄱ. 하교하다가 편의점에서 라면,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ㄴ'. 하교하다가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ㄴ.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 생물을 좋아하였다.
ㄴ'.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 그리고 생물을 좋아하였다.
ㄷ. 올해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과 시즌 MVP에 빛나는 OB의 거물용병 타이론 우즈가 31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ㄷ'. *올해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과 시즌 MVP에 빛나는 OB의 거물용병과 타이론 우즈가 31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ㄷ". *올해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과 시즌 MVP에 빛나는 OB의 거물용병 그리고 타이론 우즈가 31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42ㄱ)에서는 여러 명사가 병렬적으로 결합된 명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있다. 이러한 병렬 구성의 경우 (42ㄱ')과 같이 '-와/과'에 의한 접속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42ㄴ)의 경우에도 두 명사가 병렬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42ㄴ')처럼 '그리고'에 의해 접속된 구성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반면 (42ㄷ)의 경우는 다르다. (42ㄷ)은 선행요소가 한정적인 지시물을 가진 보통명사구이고 후행요소는 고유명사로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42ㄱ, ㄴ)과는 달리 '-와/과'가 결합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42ㄷ)은 두 요소의 지시가 동일하지만, (42ㄷ')에서의 선·후행요소가 동일한 지시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그리고'에 의해서 연결된 (42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동격 구성이 병렬 구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격 확인 요소를 통해서도 동격 구성과 병렬 구성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42ㄴ, ㄷ)에 동격 확인 요소를 개입시킨 것이다.

- (43) ㄱ. *나는 고등학교 때 국어, 즉 생물을 좋아하였다.
ㄴ. 올해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과 시즌 MVP에 빛나는 OB의 거물용병, 즉 타

이론 우즈가 31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43ㄱ)과 같은 병렬 구성의 경우 동격 확인 요소인 ‘즉’이 개입되면 비문이 되어버리지만, (43ㄴ)의 동격 구성은 동격 확인 요소와 아무런 어색함 없이 어울릴 수 있다.

다음은 동격 구성과 관형 구성의 관계이다. 홍순성(1981:4)에서는 수식 관계에 대하여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속성을 드러내거나 피수식어에게 새로운 속성을 더 보태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러한 수식의 개념을 가지고 (42ㄷ)의 동격 구성을 살펴보면, 선행요소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고, 시즌 MVP로 뽑혔으며, OB의 용병이다’라는 ‘타이론 우즈’의 속성을 드러내는 수식의 기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격 구성은 관형 구성과 비슷한 수식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실 때문에 동격 구성을 관형 구성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동격 구성의 각 요소는 동일한 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의가 서로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의는 각 표현이 대응물을 정의하는 속성들이기에, 각 요소의 의의 차이는 곧 속성의 차이를 불러온다. 이 속성의 차이가 동격 구성에서 수식 기능이 불러오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동격 구성의 두 요소는 동일한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렬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정리하자면 동격 구성은 통사적으로 병렬 구성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관형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두 요소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 있을 때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인 수식의 방향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순행(順行) 수식 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 (44) 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신에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가까이 가도 좋은 아주 특별한 존재.
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는 악스수니온에는 카잔차키스가 말하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동격 구성은 두 요소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식의 방향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44ㄱ)의 경우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식의 방향이 순행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44ㄴ)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진 것인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수식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수식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을 명백한 수식 구성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Quirk et al.(1985)가 ‘동격 관계가 계사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음을 보였는데, 동격 구성의 요소들은 동일 지시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³⁰⁾’의 의미를 갖는 계사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행요소들을 임시로 계사문의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보면 그 수식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 (45) 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신애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가까이 가도 좋은 아주 특별한 존재.
- ㄱ'. ^{??}신애인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옆을 떠돌이 별처럼 떠도는 가까이 가도 좋은 아주 특별한 존재.
- 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는 악스수니온에는 카잔차키스가 말하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 ㄴ'. ^{??}포세이돈인 바다의 신의 신전이 있는 악스수니온에는 카잔차키스가 말하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45ㄱ)은 (44ㄱ)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본 것인데, 아무런 어색함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역행(逆行) 수식을 가정한 (45ㄱ')의 경우는 상당히 어색해서, 비문은 아니더라도 실제 문장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5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서, (44ㄴ)의 순행 수식 관형사절 구성인 (45ㄴ)은 아무런 어색함이 없지만

30) 박진호(2012:503-504)에서는 계사 관계를 집합소속(class membership, ascriptive), 동일(identity, identificational), 처소서술(location), 존재(existential), 제시(presentational), 시간(temporal), 수량(quantificational), 부사적 서술(adverbial predication), 술어적 소유(belong-type), 처소소유(lacational possessive), 주제소유(topic possessive), with 소유, 형용사 서술(dajectival predication), 동사 서술(verbial predication), 분열문(cleft sentence), 관련성(relatedness, illogical)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역행 수식형인 (45ㄴ')은 어색하다. 결론적으로 (44)이 순행 수식의 기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순행 수식은 한국어의 수식에서 아주 일반적인 양상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의 성격을 갖는 동격 구성이 순행 수식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동격 구성에 있어서 이 수식의 방향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은, 후술할 역행 수식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3.2.2. 역행 수식 기능

이번에는 동격 구성이 역행 수식을 이루는 경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수식 구성은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격 구성에서는 그와 반대로 후행요소가 선행요소를 꾸미는 역행 수식의 모습이 보인다.

- (46) ㄱ. 여자는 정순이, 그러니까 박재연의 조카딸이다.
ㄱ'. ??여자는 정순이인 박재연의 조카딸이다.
ㄱ". 여자는 박재연의 조카딸인 정순이이다.
ㄴ. 우리에게 민족문학, 즉 한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ㄴ'. ?우리에게 민족문학인 한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ㄴ". 우리에게 한민족 전체가 참여하는 문학인 민족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ㄷ. 저들 반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ㄷ'. *저들인 반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ㄷ". 반역자들인 저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46ㄱ)에서 선행요소는 고유명사이고 후행요소는 보통명사를 핵으로 한 명사구이

다. 이들은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 동격 구성으로, 내부에는 동격 확인 요소인 ‘그러니까’도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성을 계사문의 관형사절 구성으로 전환했을 때 순행 수식 구성인 (46ㄱ')은 상당히 어색한 느낌을 준다. 반면, ‘박재연의 조카딸’이 ‘정순이’를 꾸며주는 (46ㄱ'')의 경우에는 전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46ㄱ)의 수식 방향이 역행임을 알 수 있다. (46ㄴ)의 경우, (46ㄴ')의 수용성이 다소 높게 느껴지긴 하지만, (46ㄴ'')에 비했을 때는 역시 어색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46ㄷ)은 선행요소가 대명사이고 후행요소가 명사인 동격 구성으로 문장의 의미에 의해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동일한 지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식의 방향은 역행적이라서, 순행 수식을 가정한 (46ㄷ')은 비문이 되어버리지만 (46ㄷ'')은 큰 어색함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역행 수식의 기능은 한국어의 일반적인 수식 구성과 정반대 방향이므로 동격 구성이 가진 독특한 특징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3. 아우름 기능

이현희(1994)에서는 중세 한국어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동격 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47) ㄱ. 人과 法과 二空은 이 나토미라 <월각 상 2-2:40b>
 ㄴ. 有와 無와 中과 세 相이니 <金三 5:30a>
 ㄷ. 通은 煩惱와 所知와 두 障과 分別와 俱生과 두 惑을 가즐비니 <楞嚴 1:107a>

(47ㄱ)에서 후행요소 ‘二空’은 선행요소의 ‘人’과 ‘法’을 통칭하여 표현한 것으로, 선행요소의 지시가 동일하고 그 의의는 달라 동격 구성으로 인정할만하다. (47ㄴ)의 경우도 비슷한 예인데, 선행하는 ‘有, 無, 中’은 후행요소인 ‘세 相’과 완전히 일

치하는 지시를 가진다. 이 경우 역시 선·후행요소가 동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7ㄷ)은 동격 구성이 두 번 연속적으로 나타나있다. ‘두 障’은 ‘煩惱와 所知’를 통칭하여 표현하고 있고, ‘두 惑’은 ‘分別과 俱生’을 아울러 나타낸다. 이현희(1994)에서는 (47) 예문들의 선행요소처럼 여러 명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명사구를 ‘나열 명사구’, 그리고 후행요소처럼 나열된 명사들을 아울러 표현하는 명사구를 ‘아우름 명사구’라 칭했다.

중세 한국어에 나타난 이러한 기능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이현희(1994)의 용어를 가져와 이 기능을 ‘아우름 기능’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은 현대 한국어 문장에서 아우름 기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다.

- (48) ㄱ. 교산동 궁궐지를 중심으로 검단이라는 땅 이름이 동, 서, 남, 북 사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 ㄱ'. 교산동 궁궐지를 중심으로 검단이라는 땅 이름이 동, 서, 남, 북, 즉 사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 ㄴ. 그를 둘러싼 세 여인 즉 강청택, 월선이, 임이네와의 관계이다.

(48ㄱ)의 경우 선행요소인 ‘동, 서, 남, 북’을 후행요소 ‘사방’이 아울러 표현해주고 있다. 이 선·후행요소는 동일한 지시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다르기에 동격 구성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장에 동격 확인 요소인 ‘즉’을 개입시킨 (48ㄱ')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이들 아우름 구성이 동격 구성의 한 종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48ㄱ)에서는 아우르는 명사가 후행하고 있지만, (48ㄴ)에서는 아우르는 기능을 하는 명사구가 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세 여인’과 ‘강청택, 월선이, 임이네’가 동일한 지시를 가지고 있고, 동격 확인 요소가 개입된 상태에서 어색함 없이 구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들이 동격 구성이라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48ㄱ)은 후행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행 수식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 있고, (48ㄴ)은 구체적인 정보가 후행하므로 역행 수식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요소가 다른 요소 속에 나열된 지시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우름의 기능을 별도로 분류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아우름 기능을 보이는 구성 중에서는 모든 요소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49) 빙수기, 샴베트기, 얼음물통 등 여름 주방생활용품이 인기다.

(49)의 예에서는 선행요소에 나열되어 있는 명사들을 후행요소인 ‘여름 주방생활용품’이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선행요소에는 예시들이 일부 제시된 후 ‘등(等)’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들 전체의 지시가 후행요소인 ‘여름 주방생활용품’과 동일하고 의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름 기능은 한 요소 안에 나열되어 있는 지시를 다른 요소가 아울러 표현하는 동격 구성의 기능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아우름 기능을 하는 요소가 선행할 경우에는 역행 수식, 후행할 경우에는 순행 수식의 기능을 나타낸다.

3.3. 구어체 동격 구성

3.3.1. 문어체 동격 구성의 기능들

3.3에서는 구어체에서의 동격 구성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어체 동격 구성은 문어체의 동격 구성이 보이는 기능들을 대부분 공유하면서, 구어체 특유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구어체 문장에서 문어체의 경우와 동일한 기능을 보이는 동격 구성들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순행 수식 기능이다. 구어체에서는 순행 수식의 기능을 보이는 동격 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실시간적이고 즉흥적인 구어체의 특징 때문인데, 발화가 진행되는 도중 추가적인 정보, 즉 동격 요소를 덧붙이는 형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 (50) ㄱ. 십 뗏 인승 근까 승합차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이지.
 ㄱ'. 십 뗏 인승인 승합차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이지.
 ㄱ". *승합차인 십 뗏 인승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이지.
 ㄴ.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 음,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ㄴ'.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정제된 말인 표준어만 쓸 필요는 없지만.
 ㄴ". *진짜 방송에서 꼭 그렇게 표준어인 정제된 말만 쓸 필요는 없지만.

(50ㄱ)은 선·후행요소가 동일하게 ‘10여 인승의 승합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근까’가 동격 확인 요소로 개입하고 있어 이 구성이 동격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 보면 (50ㄱ')과 같이 순행 수식은 가능하나, (50ㄱ")의 경우와 같은 역행 수식은 불가능하다. (50ㄴ)은 문맥에 의해서 선·후행요소가 동일한 지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50ㄴ')은 가능하고 (50ㄴ")은 불가능하기에 순행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역행 수식 기능을 보이는 동격 구성은 구어체 문장에서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51) ㄱ. 방학 초등학교 방학마다 주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거 많이 다녔지.
 ㄱ'. *방학인 초등학교 방학마다 주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거 많이 다녔지.
 ㄱ". ?초등학교 방학인 방학마다 주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거 많이 다녔지.
 ㄴ. 이쪽 그니까 지도 이 밑에 쪽에.
 ㄴ'. *이쪽인 지도 이 밑에 쪽에.
 ㄴ". 지도 이 밑에 쪽인 이쪽에.

(51ㄱ)은 구어체 특유의 반복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선·후행요소가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 가지고 있으므로 동격 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보면 (51ㄱ')이 (51ㄱ")에 비해 훨씬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구어체에서의 순행 수식 기능은 후술하게 될 발화 수정 기능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제시한 예시들 역시 발화 수정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51ㄱ")이 다소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비슷한 어휘의 반복이기 때문 일 것이라 짐작된다. 또 후행요소가 선행요소에 대한 속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행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51ㄴ)의 경우 동격 확인 요소인 '그니까'가 개입된 동격 구성이다. 이를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면 순행 수식의 (51ㄴ')은 비문이 되고, (51ㄴ")은 적합한 문장이 된다. 즉, 이러한 경우들은 구어체 동격 구성에서 보이는 역행 수식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구어체 동격 구성에서는 아우름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되는 예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52) 월, 화, 수 3일은 내가 나오고...

(52)에서 선행요소인 '월, 화, 수'와 후행요소 '3일'은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진 동격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선행요소에 나열된 정보들을 후행요소가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즉, 아우름 기능을 갖는 구어체 동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들은 구어체 동격 구성에서 나타나는 기능 중 문어체와 동일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구어체 특유의 성질로 인해 나타나는 동격 구성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3.2. 발화 수정 기능

구어체 문장 발화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발화 실수가 많이 나타난다. 또 실수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더 적합하거나 더 선호되는 표현이 뒤늦게 떠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구어체 문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동격 구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표현이 갖는 지시와 동일하면서도 맥락에 더 적합하거나 기호(嗜好)에 맞는, 즉 의의가 다른 표현을 덧붙이는 것이기에 동격 구성의 정의 및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구어체 동

격 구성이 갖는 이러한 기능을 ‘발화 수정 기능’이라 부른다.

구어체 동격 구성이 발화 수정 기능을 하는 경우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잘못된 표현을 발화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여 재차 발화하는 경우이다. 문어의 경우, 잘못된 문장을 기술했을 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문장을 수정할 수 있다. 심지어 문장을 쓴 시점이 수 년 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다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어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발화하는 문장에 대해 어떤 수정도 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한 NP를 발화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정 수단으로 동격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53) ㄱ. 미미 언니랑 딴 소리 딴 얘기 했어.

ㄴ. 용의 눈물을 우리 할머니 근까 우리 지우의 할머니가 열심히 보잖아.

(53ㄱ)에서 문장 전체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선행요소 ‘딴 소리’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난다. ‘딴소리하다’와 ‘딴 얘기 하다’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표현이 잘못된 이 경우에도 선행요소를 통해 화자가 지시하고자 한 바는 후행요소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지시를 가진 동격 구성이라 할만하다. (53ㄴ)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우의 할머니’ 즉 화자 자신의 시어머니이다. 여기서 선행요소 ‘우리 할머니’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지시를 갖는 표현이라 추측할 수 있다. 화자는 이 표현이 발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동일한 지시를 가지면서 의의는 다른, ‘우리 지우의 할머니’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발화 도중 더 선호되는 표현이 인식되었을 경우이다. 발화 수정 기능은 발화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더 선호되는 표현이 뒤늦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도 사용된다.

(54) ㄱ. 또 이렇게 그 여자 그 아가씨도 나두 앉을려구 막 그렇지 않구.

ㄴ. 이 사람은 당연히, 여자 아나운서는 당연히 바르고 고운 말을 쓸 것이다 했는

데.

(54ㄱ)에서는 선·후행요소가 명백하게 동일 지시를 이룬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의미는 전혀 다르다. 선행요소인 ‘그 여자’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 구어로 발화했을 때 부정적인 가치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지시를 가지면서도 더 선호되는 형식인 ‘그 아가씨’로 동격을 이루어 발화를 수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54ㄴ)의 경우에는 선행요소가 발화된 후 문장이 진행되다가 동일한 지시를 갖는 요소가 첨가되어 다시 문장을 재시작한 경우로, 구어체의 즉흥적인 특성이 반영된 동격 구성이다. 이 경우 선행요소인 ‘이 사람’보다 ‘여자 아나운서’ 쪽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표현이기에 선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격 구성의 발화 수정 기능은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도 나타난다. 구어체 구어에서 문장은 실시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때로 한 지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은 채로 발화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박진호(2008)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신 사용되는 요소를 ‘자리채우미(placeholders)’라고 하였는데, 이들도 동격 구성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55) ㄱ. 사회자 그 김국진이랑 개 김용만.

ㄴ. 나 개 싫어해. 누구야. 개 주인공 니콜 키드만.

(55ㄱ)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지시체는 ‘김용만’이다. 그런데 이 경우 ‘김용만’이라는 지시체를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인 고유명사가 떠오르지 않아, 동일한 지시를 갖는 다른 표현들을 가져다 동격 구성을 이루어 놓고 있다. 이 경우 선행한 요소들은 최종적으로 발화 수정을 통해 정확한 표현이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임시로 사용된, 일종의 자리채우미됨을 알 수 있다. (55ㄴ) 역시 이와 비슷하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고유명사 ‘니콜 키드만’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고유명사가 떠오르지 않자, 동일한 지시를 하는 다른 자리채우미들을 임시로 가져와서 발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발화 수정 기능은 잘못된 발화를 했을 경우,

더 선호되는 표현이 있을 경우,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즉흥적인 구어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독특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3.3.3.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은 구어체 동격 구성에서 대단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능이다.

강조 기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대명사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대명사는 보통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주된 기능은 ‘대용’이다. 즉, 대명사는 대용어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양명희(1994)에서는 대용어를 ‘선행어보다 간결한 형식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성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명확한 진술을 피하거나 또는 정확한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만도(2001)에서는 대용어(anaphor)란 독자적인 지시를 가질 수 없으며 문장내의 다른 표현, 즉 선행사로부터 그 지시를 취하는 명사구라 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용어는 독립적인 지시를 갖지 못해 동격 구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56) ㄱ. 이것은 언제나 웃고만 다니던 이신애, 그녀의 이야기이다.
- ㄴ. 이것은 언제나 웃고만 다니던 이신애, 즉 그녀의 이야기이다.
- ㄷ. 이것은 언제나 웃고만 다니던 이신애, 아름다웠던 그녀의 이야기이다.

(56)에서 선행요소는 고유명사이고 후행요소는 대명사이다. 이 후행요소는 ‘이신애’를 지시하기 때문에 자칫 선행요소를 다시 가리킬 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경우, 선행요소 ‘이신애’는 ‘이신애’라는 지시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표현이며, 후행요소 ‘그녀’는 동일하게 ‘이신애’라는 지시체를 갖는 대명사 표현이다. 이는 선행요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지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후

행 대명사는 독립적으로 지시를 갖는다. 동격 확정 요소가 개입된 (56ㄴ)이 가능하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56ㄷ)도 가능하다는 점도 이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³²⁾ 또한 선행요소인 고유명사는 어느 맥락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대명사는 맥락에 따라 그 지시하는 대상이 변할 수 있다. 즉 대응물(지시체)를 정의하는 속성이 서로 달라, 의의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대명사는 동격 구성의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7) ㄱ. 나는 옛날에 삼계탕 그거 안 먹었다.
 ㄱ'. 나는 옛날에 삼계탕 안 먹었다.
 ㄴ. 아니, 내 남자친구 걔³³⁾한테 시킨다.
 ㄴ'. 아니, 내 남자친구한테 시킨다.

(57ㄱ)의 예문을 보면 후행요소인 ‘그것’이 선행요소와 동일한 지시를 하며 선행요소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다. 이것은 이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57ㄱ')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57ㄴ)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인상을 남긴다. 이 역시 (57ㄴ')과 비교해보면 이 대명사가 선행요소에 대해 강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선행요소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명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선행요소가 제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명사에 의한 강조’라 부르기로 한다.

32) 예를 들어, 수사나 수량사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관형사의 수식과 동격 확인 요소의 개입이 어색하다.

장미 셋을 샀다./ *장미 붉은 셋을 샀다. / ?장미 즉 셋을 샀다.
 장미 세 송이를 샀다. / ??장미 붉은 세 송이를 샀다. / ??장미 즉 세 송이를 샀다.

33) ‘애, 걔, 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아이, 그 아이, 저 아이’의 줄임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줄임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섭 외(2005:88)에서도 일반 대화에서 ‘애, 걔, 재, 이이, 저이, 그이, 이분, 저분, 그분’ 등이 대명사로 쓰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 표현이 과연 구어체 특유의 기능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다.

(58) ㄱ. 청진동은 해장국, 그것을 잘한다.

ㄴ. 빈손에서의 기억, 그것을 모아 시집을 한 권 더 낼 생각이다.

(58ㄱ)은 김영희(1989)에서 동격 구성의 한 예로 제시한 예문인데, 이선웅(2007b)에서도 이 견해를 받아들여 동격 구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문장은 문어체임에도 앞서 나왔던 대용 표현에 의한 강조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어체 말뭉치를 검색해본 결과, (58ㄱ)과 같이 문장 중간에 이러한 구성이 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58ㄴ)과 같이 한 요소가 문두에서 제시어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58ㄱ) 문장은 가상의 문장으로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표현에 이끌린 것이라 볼 수 있으며 (58ㄴ)과 같은 경우는 동격 구성 요소가 제시어일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은 기본적으로 구어체 동격 구성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기로 한다.

3.4. 소결

3장에서는 문체적 특성에 따라 동격 구성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3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3.1에서는 동격 구성의 기능 분석에 앞서 문체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이 있는 문어체 문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를 ‘문어체’로 묶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을 가진 구어체 구어만을 ‘구어체’로 분류하여야 동격 구성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밝혔다.

3.2에서는 문어체 동격 구성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여기서 문어체 동격 구성은 순행 수식 기능, 역행 수식 기능, 아우름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에서는 구어체 동격 구성을 탐구하였는데, 구어체 동격 구성은 문어체 동격 구성이 가진 기능들 뿐 아니라 문체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특유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발화 수정 기능과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4. 형태적 특성에 따른 동격 구성 분석

4.1. 형태 특성에 관한 기본 논의

4장에서는 형태적 특성에 따라 동격 구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격 구성의 각 요소들은 서로 다른 의미, 즉 속성의 차이를 보인다. 이 의미의 차이는 각 요소의 형태적인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 분석을 통해 어떤 형태들의 결합이 어떤 기능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격을 NP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 동격 구성의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문장 안에서 'NP'의 기능을 하는 성분들일 것이다. 즉, 체언류가 이에 해당된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이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동격 구성을 이루는 체언류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본다. 그런데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의 경우는 스스로 어떤 지시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동격 구성의 요소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수사는 제외하고, 명사와 대명사의 경우만 살펴하기로 한다.

명사의 경우 하위 부류를 더 설정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류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고영근·구분관(2008)의 견해에 기반을 두기로 한다. 여기서는 명사를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에 따라서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는 자립명사에 속하므로, 크게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명사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대명사로 규정되어 있는 어휘 뿐 아니라 일부 대용표현들까지 묶어서 살펴보려 한다. 여기에는 이익섭 외(2005:88)에서 제시한 '애, 개, 재, 이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이 포함된다.

동격 구성을 살펴해보면 간혹 선행요소 뒤에 속격 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주 특수한 동격 구성 형태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개의 절을 두어 다루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떤 구성의 핵은 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수식어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각 형태 부류들이 핵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후행하는 경우³⁴⁾를 상정해두고 그것이 다른 선행요소들과의 결합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4.2. 명사구³⁵⁾ 구성

4.2.1. 명사구와의 결합

우선 명사구가 다른 명사구를 선행요소로 두고 동격 구성을 이루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앞서 명사의 하위 부류로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간의 결합 양상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다.

보통명사는 단독적으로 사용될 경우 단일한 지시체보다는 집합적인 지시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시사나 관형사(구/절), 맥락 등에 의해 범위가 한정되기도 한다.

(59) ㄱ. 또 이렇게 그 여자 그 아가씨도 나두 앓으려구 막 그렇지 앓구.

ㄴ. 아저씨들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는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34)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동격 구성 중에서는 역행 수식을 이루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핵은 후행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격 구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특이한 수식 방식에 불과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후행요소를 중심으로 보았다.

35) 여기서 말한 ‘명사구’는 지금껏 논의되어온 ‘NP’보다 하위의 개념이다. 본고에서 ‘NP’는 명사구, 대명사구 등을 포함하는 상위어-체언 상당 요소-로 설정하였고, ‘명사구’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를 하위항목으로 갖는 일반적인 명사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ㄷ. 어느 정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 즉 시청자들의 어법을 틀림없이 반영 한다.

(59)은 보통명사구끼리 결합한 예이다. (58ㄱ)의 ‘여자, 아가씨’는 보통명사로,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부류에 대한 지시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시사와의 결합으로 그 지시가 한정되어 있다. 이 구어체 동격 구성은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발화하는, 발화 수정의 기능을 가진다. (59ㄴ)에서 후행요소의 핵인 ‘사람들’은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은 보통명사이다. 선행요소인 ‘아저씨들’의 경우 문장의 내용과 맥락에 의해 후행요소와 동일한 지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동격 구성은 후행요소가 선행요소에 대한 속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역행 수식 기능, 혹은 발화 수정 기능을 나타낸다. (59ㄷ)의 경우 선행요소의 핵인 ‘사람들’은 관형사절에 의해 한정되는데, 이 지시가 후행하는 표현인 ‘시청자들’과 일치하기에 동격 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문어체 동격 구성은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속성을 자세히 나타내어 주므로 순행 수식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통명사구끼리 동격 구성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구어체와 문어체 양쪽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인다.

고유명사구와 보통명사구의 결합은 앞서 살펴본 보통명사구끼리의 결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60) ㄱ. 언플러그드 호러무비, 즉 꾸며진 공포에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ㄱ'. *언플러그드 호러무비인 꾸며진 공포에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ㄱ". 꾸며진 공포에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공포 영화인 언플러그드 호러무비다.
ㄴ. 주희 근까 소개팅 주선한 여자 애랑 저랑 있으니까...
ㄴ'. *주희인 소개팅 주선한 여자 애랑 저랑 있으니까...
ㄴ". 소개팅 주선한 여자 애인 주희랑 저랑 있으니까...

(60ㄱ)은 선행요소가 고유명사인 ‘언플러그드 호러무비’이고 후행요소가 보통명사구인 경우로, 두 요소의 지시는 동일하다. 그리고 선행요소인 고유명사는 맥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대상을 정확하게 가리키지만, 후행요소인 보통명사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아 한정된 지시체를 표현하므로 그 표상의 양식, 즉 의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행 수식을 상정한 (60ㄱ)이 어색하고 역행 수식인 (60ㄱ")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역행 수식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어체인 (60ㄴ)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선행요소 '주희'는 고유명사이고, 후행요소는 보통명사구이다. 이 경우에도 순행 수식을 가정한 (60ㄴ')은 어색하고 역행 수식의 (60ㄴ")은 정상적이어서, (60ㄴ)이 역행 수식의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고유명사구+보통명사구'의 경우 선행하는 고유명사구가 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통명사구가 선행하고, 고유명사구가 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 (61) ㄱ. 그의 아내는 다음 아이, 즉 지금 국민학교 사학년인 영옥이를 낳고부터는...
 ㄱ'. 그의 아내는 다음 아이인 지금 국민학교 사학년인 영옥이를 낳고부터는...
 ㄱ". *그의 아내는 지금 국민학교 사학년인 영옥이인 다음 아이를 낳고부터는...
 ㄴ. 탐 크루즈 나온 영화, 그니까 미션 임파서블 봤거든.
 ㄴ'. 탐 크루즈 나온 영화인 미션 임파서블 봤거든.
 ㄴ". *미션 임파서블인 탐 크루즈 나온 영화 봤거든.

(61ㄱ)의 선행요소는 보통명사구이고, 후행요소는 고유명사구이다. 이들 역시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 동격 구성이다. 그런데 이 경우 순행 수식인 (61ㄱ)이 역행 수식인 (61ㄱ")에 비할 때 훨씬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61ㄱ)은 순행 수식의 기능을 갖는다. 이 점은 구어체 문장인 (61ㄴ)도 마찬가지여서 순행 수식인 (61ㄴ')은 어색함이 없지만 역행 수식인 (61ㄴ")은 어색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보통명사구와 고유명사구가 동격 구성을 이룰 경우, 그 선후 관계와는 상관없이 고유명사구가 피수식어, 즉 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명사구와 동격을 이루고 있는 보통명사구는 대체로 '수식어 + 보통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수식어와 보통명사는 고유명사구가 갖는 속성에 포함된다.

예컨대 (61ㄴ)의 경우, ‘미션 임파서블’은 ‘탐 크루즈가 나왔다’는 점과 ‘영화’라는 점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명사구가 고유명사구의 속성으로 해석되어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의존명사구와 보통명사구의 구성을 살펴기로 한다. 의존명사는 독립적으로는 문장의 요소로 활동할 수 없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의존명사 중에서 동격 구성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적은 편이어서, ‘뻔, 대로, 채, 줄, 뻔, 지’ 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62) ㄱ. 여기서 코퍼스란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 즉 텍스트의 집합을 말한다.

ㄱ'. ²여기서 코퍼스란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인 텍스트의 집합을 말한다.

ㄱ". ^{??}여기서 코퍼스란 텍스트의 집합인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ㄴ. 박원순 처장이 얘기한 거 그니까 시민 운동에 대한 열두 가지 편견과 오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ㄴ'. 박원순 처장이 얘기한 거인 시민 운동에 대한 열두 가지 편견과 오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ㄴ". ^{*}시민 운동에 대한 열두 가지 편견과 오해 그 부분들인 박원순 처장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62ㄱ)에서 선행요소는 의존명사 ‘것’에 의한 구성이고, 후행요소는 보통명사구이다. 이 경우에도 이들이 지시하는 바가 동일하며 의의가 서로 다르므로 동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행요소의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이 후행요소인 ‘텍스트의 집합’의 속성을 드러내주므로 순행 수식이라 볼 수 있다. 이는 (62ㄱ', ㄱ")의 수용성 측면을 비교했을 때도 드러난다. 다만 이 경우들이 다 어색한 것은 ‘텍스트’가 반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62ㄴ)은 구어체의 경우인데 후행요소가 선행요소를 수식하는 역행 수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후행요소가 선행요소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를 계사문의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보면 역행 수식인 (62ㄴ")은 비문 또는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고 순행 수식인 (62ㄴ')은 문제가 없는 구성을 이룬다. 즉, 이 경우 역시 순행 수식 기능을 보

인다.

(63) ㄱ. 불쌍한 백제의 유민들, 나를 이다지도 믿고 따르는 자들!

ㄴ. 불쌍한 백제의 유민들, 나를 이다지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ㄴ'. *불쌍한 백제의 유민들인 나를 이다지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ㄴ". 나를 이다지도 믿고 따르는 자들인 불쌍한 백제의 유민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말뭉치 자료에서는 선행요소가 보통명사구이고 후행요소가 의존명사구인 경우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는데, (63ㄱ)은 드물게 문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 각 요소가 독립어처럼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 이들이 한 문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63ㄴ)과 같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이 구성을 관형사절로 바꾸어보면 순행 수식인 (63ㄴ')은 어색하고, 역행 수식인 (63ㄴ")은 정상적이므로 이 구성이 역행 수식임을 알 수 있다.³⁶⁾

다음으로 고유명사구끼리의 동격 구성을 살펴보자.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 고유명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어에서는 ‘셋별’과 ‘개밥바라기’ 정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한 유형들을 제외한다면, 그 예는 대단히 드물다.

(64) ㄱ. APCASO란 ASIA/PACIFIC COUNCIL OF AIDS SERVICE ORGANIZATION,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즈 사업 민간기구협의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조직이다.

ㄱ'. APCASO란 ASIA/PACIFIC COUNCIL OF AIDS SERVICE ORGANIZATION,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즈 사업 민간기구협의회이다.

ㄴ. 이것은 축협, 즉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다.

36) 이와 같은 표현은 구어체 문장으로는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고,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텍스트에서 특정한 효과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64ㄱ)에는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 고유명사구들이 결합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성은 고유명사구와 보통명사구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후행요소의 핵이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64ㄱ)과 같이 바꾸어 보면 동격 구성을 이루는 경우로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선행요소가 완전한 영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어의 동격 구성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64ㄴ)은 한국어에서 위와 비슷한 경우를 상정해본 것이다. 이 경우 줄임말인 ‘축협’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영어가 사용된 (64ㄱ)은 논의에서 제외하며, (64ㄴ)은 동격 구성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64ㄴ)의 경우, 후행요소가 선행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을 보이므로 선행요소가 수식을 받는 역행 수식의 기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유명사구와 의존명사구가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고유명사구가 선행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존명사구와 일반명사구의 결합 양상과 비슷하다. 또한 구어체에서도 이러한 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문어체에만 드물게 예시가 발견된다.

- (65) ㄱ. 지금 사형집행을 하려는 현장과 이를 구하러 달려오는 사람을 교대로 보여주는 것, 즉 컷백³⁷⁾을 말한다.
 ㄴ. 살아남은 유일한 이가 여기 이 지붕 밑 다락방에 잠들어 있는 자, 프랑수와 비용이다.
 ㄷ. 대용이, 네가 찾던 자가 왔다.

(65ㄱ)은 선행요소가 의존명사구이고 후행 명사가 고유명사인 경우이다. 이 경우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속성을 밝히는 역할을 하므로 순행 수식 관계라 할 수 있다. (65ㄴ)에서도 선행요소인 의존명사구가 후행요소인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보이며 순행 수식 기능을 한다. (65ㄷ)은 선행요소가 고유명사, 후행요소가 의존명사

37) 컷백 : 영화 편집에서, 연속된 장면 가운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왔다가 다시 원래의 장면으로 돌아가는 기법.

구인 경우인데, 후행요소가 선행요소의 속성을 나타내는 역행 수식 기능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자립명사구와 의존명사구의 결합에서는 언제나 의존명사구가 수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의존명사구에 포함된 관형어가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속성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의존명사구끼리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존명사구끼리 동격을 이루며 결합할 때, 두 명사구의 핵심이 되는 의존명사는 동일하다. 즉, 선행 명사구에 ‘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후행 명사구에도 ‘것’이 나타나며, 선행 명사구에 ‘자’가 나타나면 후행 명사구에도 반드시 ‘자’가 나타난다.

(66) ㄱ. 생명을 사는 자, 즉 산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ㄱ'. ^{??}생명을 사는 자인 산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ㄱ". *산 자인 생명을 사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ㄴ. 말할 것도 없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 즉 모르는 것을 배워 아는 것이므로...

ㄴ'. *말할 것도 없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인 모르는 것을 배워 아는 것이므로...

ㄴ". [?]말할 것도 없이 학생의 본분은 모르는 것을 배워 아는 것인 공부하는 것이므로...

ㄷ. 비행기에서 가져온 거 그니까 원래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ㄷ'. *비행기에서 가져온 거인 원래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ㄷ". [?]원래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인 비행기에서 가져온 거지.

의존명사구에 의한 동격 구성의 경우 그 수식 방향을 알기가 어려운데, 두 요소를 계사의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66ㄱ)의 경우는 선·후행요소가 모두 ‘자’에 의한 의존명사구이며, 그 지시하는 바가 같고 의의는 다르다. 이 구성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보면 (66ㄱ', ㄱ")과 같이 되는데, 이것은 둘 다 정상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66ㄱ)에서 선행요소의 ‘생명을 사는’이라는 관형사절이 후행요소의 ‘산’이라는 동사 관형사형의 속성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구성은 선행요소가 후행요

소를 수식하는 순행 수식일 가능성이 높다. ‘것’에 의한 의존명사구 동격 구성인 (66ㄴ)의 경우 후행요소의 관형사절이 선행요소의 관형사형 동사의 속성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 계사의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66ㄴ')보다 (66ㄴ")이 수용성이 높게 느껴지므로 역행 수식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로 동격 구성을 이룬 (66ㄷ)의 예는 구어체 문장인데, 수식 기능을 방향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66ㄷ', ㄷ")의 수용성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역행 수식 기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보아 의존명사구끼리의 동격 구성은 순행 수식과 역행 수식 등 다양한 기능을 보인다.

4.2.2. 대명사구와의 결합

다음으로 명사구가 후행요소이며 선행요소가 대명사구일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후행요소가 보통명사구인 경우부터 살펴보자.

(67) ㄱ. 아, 개 디게 이상하게 생긴 애.

ㄱ'. *아, 개인 디게 이상하게 생긴 애.

ㄱ". 아, 디게 이상하게 생긴 애인 개.

ㄴ. 그러나 이들 규정이 강제성이 없고 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ㄴ'. *그러나 이들인 규정이 강제성이 없고 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ㄴ". ?그러나 규정인 이들이 강제성이 없고 서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67ㄱ)은 보통명사구가 후행하고 선행에 대명사인 ‘개’가 나타나 있는 구어체 동격 구성의 예시이다. 이들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꾸어 표현해보면 순행 수식인 (67ㄱ

)은 어색하고, 역행 수식인 (67ㄱ")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구성은 역행 수식의 기능을 갖는다. (67ㄴ)에서 '이들'은 대명사의 일종으로 후행요소 '규정'과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에도 순행 수식인 (67ㄴ')은 어색하고, 역행 수식인 (67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요컨대 선행요소가 대명사구, 후행요소가 보통명사구일 경우에는 역행 수식의 기능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후행요소가 고유명사구인 경우이다.

- (68) ㄱ. 나 장량은 지금껏 호수와 같이 넓은 아량으로...³⁸⁾
 ㄱ'. *나인 장량은 지금껏 호수와 같이 넓은 아량으로...
 ㄱ". ²장량인 나는 지금껏 호수와 같이 넓은 아량으로...
 ㄴ. 그리움의 대상과 목표가 바로 그녀, 신밧드였다.
 ㄴ'. *그리움의 대상과 목표가 바로 그녀인 신밧드였다.
 ㄴ". ²그리움의 대상과 목표가 바로 신밧드인 그녀였다.
 ㄷ. 하지만 애 뽀식이 같은 경우에는...
 ㄷ'. *하지만 애인 뽀식이 같은 경우에는...
 ㄷ". ²하지만 뽀식이인 애 같은 경우에는...

(68ㄱ)에서는 선행요소가 대명사, 후행요소가 고유명사인 경우이다. 이것을 관형사절 구성으로 바꾼 (68ㄱ', ㄱ")은 둘 다 정상적인 문장이라 보기 힘들지만, (68ㄱ') 보다는 (68ㄱ")이 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경우는 역행 수식의 기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68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8ㄴ', ㄴ")은 둘 다 정상적이지 않지만, (68ㄴ")이 보다 수용성이 높아 이 구성이 역행 수식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8ㄷ)과 같은 구어체의 경우, (68ㄷ')과 (68ㄷ")의 경우를 통해 역행 수식 기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경우는 선행하는 대명사구를 임시로 발화한 후 정확한 표현을 덧붙인 발화 수정 기능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명사구가 선행하고 의존명사구가 후행하는 구성의 경우를 가정할

38) 이 문장은 영화 <화산고>의 대사 중에서 가져왔다.

수 있는데, 말뚱치와 기존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의존명사구가 후행하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과, 의존명사구가 대명사와 비슷한 대용 기능을 자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⁹⁾

이상을 통해 ‘대명사구 + 명사구’ 구성은 대체로 역행 수식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명사는 맥락에 따라 지시하는 대상이 매우 가변적이기에, 이를 고정시켜줄 표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동격을 이루고 있는 명사구가 일종의 결속 요소로 해석되어 이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3. 대명사구 구성

4.3에서는 대명사구가 후행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후행요소가 대명사구일 때, 선행요소로는 일반적으로 명사구가 나타난다. 즉, 대명사구끼리 동격 구성을 이루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9) 근데 너 그거 그거 교직 이수 했냐?

(69)와 같은 구어체 문장에서는 동일한 지시를 갖는 대명사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그거’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은 동격 구성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문장에서 ‘그거’의 지시는 세 번째 요소인 ‘교직 이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대명사구끼리의 구성이라 볼 수 없다. 즉, 여기에서 ‘그거’는 발화 수정 기능의 일환으로 사용된 자리채우미로, 두 번 반복된 것은 구어체 특유의 반복 표현일 뿐이다. 이는 4.2.2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명사는 가변성 때문에 결속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동일하게 가변적인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에 대해 결속 요소 역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9) 대명사구끼리의 동격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4.3에서 다룬다.

우선 선행요소로 보통명사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70) ㄱ. 우리 학교 거기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앉아 있던데요?

ㄴ. 나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온 애 개랑 나랑 정말 못살았어요.

ㄷ. 문호 단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와 비교된 여인, 그녀가 바로 장미선 씨였다.

(70ㄱ)은 선행요소가 보통명사구이고 후행요소가 대명사인 구성으로,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 이 구성은 후행하는 대명사가 선행요소에 대해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 기능을 갖는다. (70ㄴ)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후행요소 '개'가 선행요소에 대해 강조 기능을 갖는다. 이들 역시 동일한 지시와 서로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동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70ㄷ)은 문어체에서 나타난 예이다. 이 경우 역시 후행하는 대용 표현이 강조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보편적인 경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선행요소가 제시어인 경우에 나타나는 문어체의 강조 기능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선행요소가 고유명사구인 경우를 살펴보자.

(71) ㄱ. 이번에 이재수 개두 참 웃긴 거 같애.

ㄴ. 성원이 개 할 말 없으면...

ㄷ. 대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용정땅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등장한 서희, 그녀는 이미 지략과 미모, 거기에 치재(治財)의 술책까지 겸비한...

(71ㄱ, ㄴ)은 고유명사와 대용 표현이 동격 구성을 이룬 구어체 문장이다. 이들은 구어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고, 활발하게 사용된다. 이들 역시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 (71ㄷ)은 문어체 문장에서 나타난 예인데, 역시 제시어가 동격 구성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존명사구가 대명사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들이다.

(72) ㄱ. 난 또 차별을 하는 거 그거 되게 싫어하거덩.

ㄴ. 어~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철저히하게...

ㄷ. 어쨌거나 살아남은 이들, 이들 역시 그렇다.

(72ㄱ, ㄴ)은 선행요소가 ‘거(것)’에 의한 의존명사구가 대용 표현과 결합하여 동격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후행하는 대용 표현이 선행요소를 강조하는 기능을 보인다. (72ㄷ)은 선·후행요소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자칫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행요소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에 의한 의존명사구이고, 후행요소는 대명사 ‘이들’이다. 이 경우 역시 후행하는 대명사가 선행요소를 강조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후행요소가 대명사구일 경우 그 기능은 대체로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을 나타낸다.

4.4. 속격 조사 개입 구성

속격 조사 개입 구성은 동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 속격 조사가 개입해 있는 경우로 매우 특이한 형태의 동격 구성이다. 이 때 속격 조사는 속격의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김창섭(2008:10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였다.

(73) ㄱ. 이/그/저/망할/무슨/나쁜/못된 놈의 자식

ㄱ'. 그 못된 놈의 자식이 오늘도 무전취식했다.

ㄱ". 그 못된 놈이 오늘도 무전취식했다. / 그 자식이 오늘도 무전취식했다.

ㄴ. 네 이 놈/년

(73ㄱ)의 경우 ‘놈의’가 관용표현화한 것인데, 선·후행요소가 동일 지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에 대해 일종의 수식 기능을 갖는다. (73ㄱ')은 이 구성

을 포함한 문장을 상정해본 것인데, 결과에 이 두 요소는 동일한 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요소가 속격 조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3ㄱ)을 통해 보았을 때, 선행요소 ‘못된 놈’은 일종의 주어적 속격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격 구성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 김창섭(2008:108)에서는 (73ㄴ)에 대해 이들이 자유 구성으로 쓰이던 과거의 어느 시기에 ‘네’는 오늘날의 ‘너+의’와 동가였을 것이라 설명한다. 즉, 이 구성 역시 과거에는 속격 조사 개입의 동격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가 개입한 동격 구성은 예가 드문 편이지만 이를 따로 분류할 가치는 충분하다. 우선 현대 한국어의 모태가 되는 중세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가 동격 구성에 개입되었던 흔적들을 비교적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 (74) ㄱ. 三千大千 國土에 曷득 怨讐入 도즈기어든 <釋詳 21:5b>
- ㄴ. 너희 일후물 일곤즈브면 이 怨讐入 도즈글 버셔나리라 <釋詳 21:6b>
- ㄷ. 頭陀는 떠러브리닷 마리니 煩惱를 떠러브릴 씨라 <法華1:32a>

(74)는 두 명사구 사이에 ‘-入’이 온 예이다. 그런데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을 때, 선행요소에 붙은 ‘-入’이 속격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74ㄱ, ㄴ)의 ‘怨讐’와 ‘도죽’은 원문에 하나의 어휘인 ‘怨敵’으로 나타나 있다. 즉,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는 하나의 지시를 가지며, 각각 ‘怨’과 ‘敵’의 의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속격 조사 ‘-入’이 개입한 동격 구성이다. (74ㄷ)의 경우는 명사구처럼 인식되는 관형사절에 속격 조사 ‘-入’이 개입된 동격 구성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속격 기능을 하는 요소가 동격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비단 한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문법에서는 ‘동격적 소유’를 문법범주 속에 포함시켰는데, 속격의 기능과 동격의 기능에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어의 경우, 주로 속격 기능을 하는 ‘の’가 생산적으로 동격 구성에 개입된다.

(75) ㄱ. 監督の鈴木 : 감독 스즈키

ご主人の朴さん : 남편 박 선생님

社長の田中 : 사장 다나카

ㄴ. こちらは私の主人の佐々木小次郎です。 : 이쪽은 저의 남편인 사사키 코지로입니다

(75ㄱ)은 이재령(1995)에서 ‘의’가 개입한 동격 구성의 예로 든 것들이다. 그리고 (75ㄴ)은 ‘의’가 개입된 실제 구문을 상정한 것이다. 이 경우 고유명사로 표현된 후행요소와 보통명사구인 선행요소가 동격 관계를 이룬다. 즉, 일본어의 속격 조사 ‘の’는 동격 구성에 개입하여 속격 조사 개입형 동격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격 조사 개입형 동격 구성이 현대 한국어의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76) ㄱ. 아니 이놈의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ㄴ. 피로의 종류는 크게 근육, 감각기관, 정신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ㄷ. 무지개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일곱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

(76ㄱ)은 구어체 말뭉치에서 쉽게 발견되는 예로, (73)에서 제시한 예와 동일한 경우이다. (76ㄴ, ㄷ)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아우름 기능의 동격 구성이다. 아우름 기능의 동격 구성에서 속격 조사 ‘의’가 개입되는 경우는 대부분 문어체 문장에서 나타나고, 구어체에서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4.5. 소결

4장에서는 구성 요소 부류에 따른 동격 구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NP를 이루는

요소는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2장에서 수사가 제외됨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명사와 대명사의 경우만을 다루었다. 명사의 경우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의존명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들이 결합하는 양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7)

<div style="text-align: center;">선행요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후행요소</div>	보통명사(구)	고유명사(구)	의존명사구	대명사(구)
보통명사(구)	순행 수식 역행 수식 (구어체 ⁴⁰)	역행 수식 (구어체)	순행 수식 (구어체)	역행 수식 (구어체)
고유명사(구)	순행 수식 (구어체)	역행 수식 (줄임말)	순행 수식	역행 수식 (구어체)
의존명사(구)	역행 수식 (구어체)	역행 수식	순행 수식 역행 수식 (구어체)	발견되지 않음
대명사(구)	대명사에 의한 강조 (대부분 구어체이며 문어체에서는 제시어 구성으로 나타남)			발견되지 않음

또한 특이한 형태로 속격 조사를 개입시킨 동격 구성도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활발한 편이었고 일본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가 개입된 동격 구성은 주로 아우름 기능의 구성이나 ‘놈의’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40) 구어체에서 예시가 발견된 경우들은 모두 발화 수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5.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동격’이라는 술어가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장에서는 동격 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동격 구성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동격을 NP 사이의 관계로 한정하였는데, 통사적인 정보만으로는 동격 구성이 병렬 구성과 비슷하다는 점 밖에 나타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미적인 정보를 도입하여 각 NP가 ‘동일한 지시’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의의’도 있어야 함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에 의해 그간 동격 구성과 함께 다뤄졌던 동격 관형사절, 수사 및 수량사, 재귀사, 제시어에 대해 살펴보고 동격 구성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문체적 특성에 따라 동격 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동격 구성은 통사적으로 병렬 구성이지만 기능면에서는 관형 구성과 비슷하여 수식의 기능을 보인다. 그리고 동격 구성의 문체적 특성은 문장이 즉흥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구어체 문어와 문어체 문어, 문어체 구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즉흥성이 없기 때문에 문어체로 묶고, 구어체 구어만을 구어체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문어체 동격 구성에는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수식하는 순행 수식 기능과 수식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역행 수식 기능,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아울러 표현하는 아우름 기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구어체 동격 구성은 문어체 동격 구성이 가진 기능들 뿐 아니라 발화 수정 기능, 대명사에 의한 강조 기능이 더 있음을 보았다.

4장에서는 형태적인 분류에 따라 동격 구성의 기능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NP를 이룰 수 있는 체언류를 명사, 대명사로 나누었다. 여기서 명사는 보통명사, 고유명

사, 의존명사로 세분하여 살펴보았고, 대명사는 기존의 대명사와 실제 발화에서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어휘들을 합쳐서 다루었다. 또한 특수한 경우로 속격 조사를 개입시킨 동격 구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동격 구성의 특징들을 살필 수 있었다. 동격 구성은 통사적으로는 병렬 구성과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관형 구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일반적인 수식 방향과 정반대인 역행 수식을 나타내기도 하며, 구어체의 경우에는 발화 수정, 대명사에 의한 강조 등 여타의 명사구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수식 기능을 보인다. 즉, 동격 구성은 한국어의 NP 관계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동격 구성의 특성에 대해 많은 것을 고찰했으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범위에서 제외시킨 내용이 많다. 우선 본고에서는 구성 요소들이 한 문장 안에 있고 개별적인 통사적 기능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한정했다. 이 경우 동격 관계를 이루는 요소가 문장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시어, 후보층의 동격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문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고 일단 동격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언어 변화에 따라 혹은 구어체의 다양한 변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동격 구성 양상을 모두 다룰 수 없었던 한계도 보인다. 또한 문장과는 관련 없이 NP들을 결합시켜 놓은 경우들을 제외시킨 것은 기존에 연구되어온 동격 구성에 대한 직관과 다소 어긋나므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혜미(2010), 「동격 인용절에 대한 통시적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관영(1984), 「동일지시 명사구의 구조적 제약에 대하여」, 『영어영문학21』 3, 21세기 영어영문학회, 209-232.
- 김광희(2011), 「대용 표현」, 『국어학』 60, 국어학회, 360-388.
- 김기혁(2006),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51-76.
- 김동일 외(1994), 「한국어 텍스트에서의 복합 명사구 출현 빈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841-844.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_____ (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용성(1982), 「동격의 문법적 고찰」, 『영어영문학』 28, 551-579.
- 김인균(2003), 「관형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관계」, 『국어학』 41, 국어학회, 197-223.
- _____ (2005), 『국어의 명사문법 I』, 도서출판 역락.
- _____ (2009), 「동격 명사구의 유형 및 범위와 구조」, 『우리말연구』 24, 우리말학회, 59-85.
- 김지은(2010), 「의미-통사적 특성에 따른 국어 명사의 분류 시도」, 『인문학연구』 4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91-109.
- 김창섭(2008), 「문어와 구어에서의 조사 ‘의’의 문법」,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79-115.
- 남기심(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_____ (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마 히데키(1996),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19, 한국언어학회, 133-180.
- 류명결(2003), 『일반논리학』, 형설출판사.
- 목정수(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437-470.
- 민경모(2011), 「지시사 수식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국어학』 60, 국어학회, 123-145.
- 박만도(2001), 「대용어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20, 언어과학회, 127-146.
- 박종갑(1995),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박이정.
- 박진호(2006),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97-122.
- _____(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
- _____(2008), 「자리채우미(placeholders)」, 『Kling』 2,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1-6.
- _____(2010), 「언어학에서의 범주와 유형」,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65-292.
- _____(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459-519.
- 송병학(1981), 「대명사의 분석」, 『언어』 2,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85-103.
- 서정수(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지연(2002), 「국어 구어의 부사 연구」, 『인문과학』 11, 목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9-128.
- _____(2008), 「국어 대명사의 품사론」,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33-56.
- 심상도(1990), 「중세국어 속격의 성격」, 『명지어문학』 19, 명지어문학회, 63-74.
- _____(1992), 「中世國語 屬格 '-ㅅ'의 特性」, 『명지어문학』 20, 명지대학교 국

- 어국문학과, 109-120.
- 양명희(1994), 「국어 대용어의 특성과 기능」, 『국어학』 24, 국어학회, 259-289.
-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3-86.
- 우형식(1987),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15, 연세대학교 대학원, 143-189.
- 유동석(1998), 「국어의 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307-337.
- 유혜원(2008), 「국어 명사구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197-221.
- 윤희수(2008), 「고유명사의 생성과정과 한정성」, 『언어과학연구』 44, 언어과학회, 121-137.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기백(1982), 「동격대용 의존명사 ‘것’에 대한 사적 연구」, 『어문논총』 16, 경북어문학회, 5-18.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동석(2009), 「국어의 주어적 속격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15, 한국중원언어학회, 133-147.
- 이선웅(2005), 「국어의 문장 제시어에 대하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4.
- _____(2007a), 「국어 지칭어·호칭어의 명사구 형성 문법」, 『우리말 글』 40, 우리말글학회, 123-145.
- _____(2007b),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159-185.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영길(1981), 「한국어의 주제어에 대한 소고」, 『영미어문학』 31, 한국영미어문학회, 25-37.
- 이윤하(2009), 「공범주와 조사 처리 문제에 대하여」,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

- 육학회, 481-524.
-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회, 47-63.
- _____(2004),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남기심(1988), 『국어문법론』, 한국방송통신대학.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익섭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익환(1985), 『의미론 개설』, 한신문화사.
- _____(1999), 「형식 의미론 일반 소개」,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1-56.
- 이재령(1995), 「格助詞‘의’의 意味用法 研究」, 『논문집』 4,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167-178.
- 이정택(2011),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분류 기준과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267-283.
- 이정민(1999), 「일반 양화사 이론」,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57-113.
- 이정훈(2009), 「한국어 후보층 구문의 구조」, 『어문연구』 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54.
- _____(2011), 「후보층 구문의 구조와 Ω 그리고 빈칸」, 『현대문법연구』 64, 현대문법학회, 95-116.
- 이철우(1984), 「동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출판사.
- 임동훈(2009a),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55-81.
- _____(2009b)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홍빈(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국어학회,

69-106.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 장소원(1986), 「문법기술에 있어서의 문어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영철(1997), 「한국어 총칭문의 유형」, 『언어학』 21, 한국언어학회, 289-303.
- _____ (2003), 「한국어 총칭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267-295.
- _____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 한국언어정보학회, 27-45.
- 전철웅(1990), 「사이시옷」,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186-194.
- 정은구(1995), 「문장의 정보구조와 대명사의 지시」, 『인문과학연구』 3,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7-189.
- 차준경(2003), 「고유명사의 의미와 중의성 해소」,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265-286.
- 최현배(1937), 『우리말본』.
- 홍순성(1981),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9.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London : Allen & Unwin.
- Frege, G.(1975/1892), *On Sense and Reference*, in Davidson & Harman, eds, pp. 116-128.
- Gamut, L. T. F.(1991), *Logic, Language, and Meaning volum II*,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enbaum, S. et al.(1992), *Apposition in contemporary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ty, J.(2007), *Frege on Defin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 Ruqaiya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Jespersen, O.(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II*,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_____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New York : Allen : Holt.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7), *Semantics*, London an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P. H.(1981), *Syntax*,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Ogden, C. K. & I. 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K.paul, Trench, Trubner & co., ltd;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inc.
- Quirk, R. et al.(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Seminar press New York and London.
- _____ (1973), *A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_____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Abstract>

A Study on Noun Phrase Appositional Construction of Korean

Seo, Ban-seoc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scope of 'noun phrase appositional construction' of Korean, and to frame it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Although much literature has been presented on this construction so far, it is still hard to say its definition and scope have been clearly established. Various grammatical phenomena, hardly sharing common grammatical features, such as combinations of noun phrases or adnominal phrases, have erroneously been dealt with under single terms, ie, 'apposition.'

This paper starts with focusing on NP substantive elements, and then redefines the appositional construction as 'a chain of co-referential NPs'. Here the NPs are supposed to have different senses. Each NP represents the same case, and the constructions that consist of these NPs have to represent the same case as well.

It is interesting that NP appositional construction is found syntactically similar to coordinative noun phrases, which is thought to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ir elements have the same case. But functionally, this construction resembles the modificative noun phrase, because one element(of NP) is supposed to modify another. This study has also found the elements that intervene and confirm appositional relations between NPs. This study calls these elements 'apposition-confirming elements.'

Differences in style – literary style, colloquial style– are found to give different functions to NP appositional constructions. In literary style, which has low level of spontaneousness, NP appositional constructions have functions of

progressive modification, retrogressive modification, and integration. In colloquial style, they show more functions; progressive modification, retrogressive modification, integration, and additionally, speech modification, highlighting by pronouns.

Different functions according to morphological features are also explored. NP substantive elements are classified into common noun phrases, proper noun phrases, dependent noun phrases, and pronoun phrases.

In the end, this study notes the remaining problems of the NP appositional construction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further study.

Keywords : noun phrase, appositional construction, reference, sense, spontaneousness.

Student Number : 2010-22930